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第二回音樂콩쿨大會

一

本社主催의 第二回 音樂競演大會는 지난二十一日로써그豫選을 마치고 今二十四日로써그決選을 行하게되엿다. 今回의 콩쿨에 參加한 競演者는 數에잇서서는 昨年보담 적엇지마는 實에잇서서는 훨신 向上된것이 審査員諸氏에 依하야 證明되엿슴으로 公開되는 決選의 마당에잇서서는 熱과誠으로써 나아가는 젊은樂人들의 精進의 자최가 天才를 發見하려는 希望을가지고 모힌 여러분의 同一한感激과 呼吸속에서나타나 相當히期待에 相應하는바가잇슬것을 스스로밋는바이다. 學生美術展覽會의 意義잇는事業과 아울러서 이音樂콩쿨은 實로 모든方面에잇서 時代文化의 進運에併進하려는우리들의 努力의 一部를 아름다운 情操의 世界에 集注하려는 表現의하나로서 이러한行事가 이社會의 알지못하는 한구석에서 꾸준히 各自의藝術的天分을 發揮함에 努力하고잇는 젊은藝術家들을 鼓舞하는 刺戟劑가되고 天才를 紹介하는 機會가 되다며는 이以上더 바랄것은업다。

二

後進社會가 先進社會와 共存하야 同一한文化的 레벨에서併進하고 또는 엇더한 部門에잇서서는 그보담 압설수잇다는것은 空想이아니다。最近에朝鮮에 輩出한 體育、舞踊、藝術、其他天分에잇서 世界的으로 자랑할만한 優秀分子가 몃몃잇는것은 그것을 證左한다。그러나 正直하게말하면 文化財의 遺產이그리 豊富치못하고 또는 그것을 培養할 土臺가 튼튼치못한 朝鮮의 環境에잇서서는 엇더한點에잇서서는 優秀한天分이 一定한時期에 世界的으로 發揮되엿다할지라도 그것을 蓄積된한個의 關係잇는 傳統이되게하도록 그權威가 確立되여잇지안흔 弱點을 指摘할수잇다。天才들은 잇다。그러나 그들의 天分을 充分히 發揮할만한 環境이업다。遺憾히 그것을 支援하여나가는 拍車가될만한 權威잇는 傳統이업다。이것이 朝鮮의 文化各部門에서 부르짓는 歎聲의한 句節이 아닐가한다 이러한中에잇서 다른 智的活動보담은 多少間 開拓하기 容易한 部門으로 直接的인 音樂과가튼 情操의世界를 들수잇다。

三

音樂的情操는 人間의藝術的表現意識中의 가장 原始的基本的인것인同時에 그感情의 組織傳導에잇서서의 時間的一致性、直接性에잇서서 가장人類에게 普遍的인 藝術本能이다。發生的으로볼때에 律動과함께聲音의 調和로써오는 音樂的快美感은 모든사람에게잇서 先驗的인것으로 言語의表現에 先行한것이다。그럼으로 일은藝術이업는 엇더한原始的民族에게 잇서서도 各各그民族的特性을 表現한 音樂的技巧가잇다。文化가 高級하면 高級할수록 音樂的技巧는 複雜化한다。하와이土人의 奇妙하고 單純한音樂에서 흘러 나오든 짜즈가 흘러잇든때의 그複雜多岐한 管絃樂團에 依하야 再生될때에 그結果를觀照하면 吾人은 傳統的인 的情操도 無數한 努力의蓄積이 잇지는 音樂되지 못하는것을 느기게될것이다。東洋音樂과 西洋音樂을比較할때에、前者는 精神的後者의 列에 설수잇도록 西洋도안되는것은 否認할수업는事實이다。그러나 東洋의 音樂의 傳統에잇서서는 朝鮮人은 누구에게도 뒤지지안는다。朝鮮은 現在東洋音樂의 모든傳統을 綜合하엿다고 할수잇는 音樂的 외에는 一한 保存者이다。이러한 빗나는 前統을가진 朝鮮人은 努力에 努力을加하면 無數한 베트벤、無數한 크라이슬러、無數한 칼소가 어데에 날수잇슬것을 밋고 「콩쿨」을 從事로하야 音樂에뜻하는 諸君에게 새로운刺戟을 要하는바이다。

各閣僚分擔하야 行革을研究調査
中央制度와地方制度의二項目
首相、閣議서方針明示

【東京電話同盟】行政機構改革問題取扱에 關하여는 廣田首相도 愼重한 態度로서 閣內의意見을 參酌하야研究中이든바 마침내 同問題를 中央制度地方制度及 議會制度에 關한事項의二項目으로나누어 各其少數閣僚에 分擔委囑하야 根本的改革案의調査研究에 着手케하기로 決定하고 廣田首相은 閣議席上에서이 方針을 明示하엿다 即 行政機構改革問題에 關하여는 일즉 研究中이든바 遞信陸海軍兩大臣으로부터 參考案이提案되여 其中에는 去八月二十五日 閣議에서 決定된 多數한 國策을 具現하기爲하야 必要한 行政機構改革을 包含하여잇고 其中時急을 要하는것은 明年度 追加豫算으로 提出하지안흐면 안될것도 잇다고思하다만 各省의 官制에對하여는 永久的性質을 帶함으로 其公開에 對하여는 愼重考慮研究하려한다 따라玆에 各閣僚가 나누어各其研究하기를바란다 고 廣田首相으로부터 方針을明示하고 行政機構改革問題를 分하야

一、中央制度改革事件 馬場藏相、前田鐵相、賴母木遞相、平生文相의 四相
一、地方制度改革及 議會制度改革事項 林法相、潮內相、島田農相、小川商相、永田拓相의 五相을指名하고 다시 附言하야 內閣二長官은 幹事役으로하야 各其分擔關係를 輔佐하기바란다 그리고 地方制度에對하여는 特히 現在의情勢를 考慮할點이 多大하다고思한다 議會制度에對하여는 目下 議院制度調査會에서 審議中이나더욱 根本的으로 考察하기바란다 陸海軍兩大臣의 參考案은不日 各閣僚에게 配布하겟다 그리고 閣僚들도 行政機構改革에對하야 意見을 提出하기바란다는旨를 陳述하야 各閣僚의 諒解를 求한바 全閣僚도 異議업시此를 承認하엿다

軍部當局은大贊成

【東京電話同盟】二十三日閣議에서 行政機構改革方針을 廣田首相으로부터 諮할際 寺內陸相은 行政機構改革에 關하야 政府와 軍部가 對立하야 軍部가 改革意見을 固執하고 政局不安을 招來할과가튼 見解가 一部에 傳하야 對外的으로도 非常한 惡影響을 齎來한다 例하면 對中問題 解決에 當하야 如斯한 意味에서 政變說이 甚하야 惡影響을 及하고잇다 廣田首相이 此際에 當하야 行政機構改革의 整備强化에 對하야 全閣僚一致、此에 當하기로 된것은 政局의 不安을 一掃하고 現內閣에 對하야 非常한 强味를 與하는것은 極히 明瞭함으로 軍部當局은 滿腔의 贊意를 表하다 고述하야 首相及 各閣僚를 激勵하엿다

英政府、米會社에 飛機三百臺注文
國內航空機製作能力不足으로
獨伊兩國에對備하야

【倫敦二十二日發同盟】英國政府는 獨、伊兩國政府의 再軍備에 對抗하기爲하야 空軍擴張에 着手하엿는데 國內航空機製作會社만으로는 製造能力이 不足을告하는事情에 鑑하야 近近米國航空機製造會社에 對하야 高速度戰鬪機三百臺를 注文할 意向이라한다 이미 英國技師團은 米國航空機製造工場을 實地視察하엿는데 特히 마틴複坐式다이빙爆擊機 노스로프爆擊機及 보잉單坐式爆擊機의 性能에는 感歎하고 歸來하야 當局에 重要報告를提出하엿다한다

勅語奉讀式
總督府前廣場에서擧行

十月二十四日은 恐懼하게도 敎育에 關한 勅語를 朝鮮總督에게 御下付하옵신後 正히 二十五年에 相當함으로 總督府에서는 廳舍前의 廣場에서 勅語奉讀式을 擧行하고 南總督은 諭告를 發하야 朝鮮二千萬同胞에게 敎育勅語를 基礎로한 새로운 自覺과 認識을 要望喚起할터이다 京城中央放送局에서는 이 總督府의 奉讀式狀況을 全鮮에 放送할터이다 그리고 道、府、郡、島와 各學校에서도 一齊히 勅語奉讀式을 擧行하고 各學校에서는 諭告를 敷衍하야 生徒에 訓話、이記念을 一層意義깁게하게되엿다

總督諭告

恭惟컨대 明治四十四年今月今日 畏嚴하시게도 明治天皇께압서 敎育에關한 勅語를 朝鮮에 下賜하사 歷代當局及 敎育의 職에 在한者는 恪히 聖訓을 奉戴하고 至誠報效하야써 敎學을 布敎하기 實로二十有五年、이때에 半島子女의 學을 庠序에 受한 者는 爲始하야 一齊히 我國體의 尊嚴과 國民彝倫의 大綱에 率由하야 學을 修하고 業을 勵하야 皇國臣民된 資質을 充分涵養하여왓다

回顧하건댄 敎育에 關한 勅語는 中興更始時에 當하야 敎學의 紛疑를 鎭하압시 明治天皇의 宸襟에서 發하야 祖宗의御遺訓을 紹介압시고 國體의 精華를 彰하야 萬古不易의 大猷를 昭示하압시와 我國敎育의本源을 治定하압신 敎諭로 畢히 學校敎育에서 此를服膺할 至上의 敎典일뿐만아니라 實로 全國民이 依準할 最高의聖訓인바 奉하야써 時弊를 匡하고 人心을 革하야 實踐躬行 上下一德에 歸하야 興國의 基礎를 培할것이다

方今 內外의情勢多端하야 國民精神의 更張에 俟할바 不少하다。況朝鮮은 諸般施策이 아직 其途上에 在하고 物心兩界에 亘한 開拓의 成蹟을 今後에 期함으로 官民의 責務 더욱重한 이때 가장 深大한 意義가잇는 勅語御下付 滿二十五年記念의日을 迎하야 其由來를 懷함은 諸衆과 함께 感激이 實로 새롭다

應義컨대 寰內官民深히 世局에 省하고 時勢에 察하야 日星과 如히 光輝잇는 聖勅을 瞻仰奉體하야써 크게 國民道德을 振起하고 國運無窮의 興隆에 至念을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昭和十一年十月二十四日
朝鮮總督 南次郎

大野總監謹話

畏하옵게도 敎育에關한 勅語를 朝鮮에拜載한지 滿二十五年의 가장意義기픈 記念日을 마지함에 當하야 總督閣下께서 特히 諭告를 發하야 其任이 敎育에 在한 者는 勿論 半島二千萬民衆에 對하여는 聖訓에 恪遵하야 報效의 赤誠을 다하는 同時에 크게 國民道德을 振起하야 國民能力을 强化하야써 國運無窮의 興隆을 必期할 官署를 懇諭하신바 잇섯다 玆에 我等 官民은 衷心으로 聖慮에 奉對하야 感激을 새롭게하고 至誠報效 各其職分에 精進하기를 希望하는바이다

眞實로 二十五年의 過去를省하야 半島의 今日의實情에 想到하면 施政僅히 四半世紀에 恒하옵게도 一視同仁、萬民子愛의 大御心에 浴하고 歷代當局의 適正한統治方針과 이에應한 半島民衆의 努力으로 思想으로 文化로 産業에 敎育에 모든方面이 明朗하게되고 充實하게되어 今日의平和와 繁榮을 보게된것은 欣快不己하는바이다 此原因은 許多하나 其礎石이 되는것은 國民敎育이 漸次普及徹底된 結果에不外한것이며 其根源力은 實로 敎育에關한 勅語의 御聖旨顯現인것을 기피밋는바이다

請컨댄 半島官民 各位는 將次 一大飛躍을 必期할 治政第二次 四半世紀를 압두고 또 多事多難한 帝國前途에 直面하야 貧할我等이다 一意 聖旨를 奉하고 이에依하야 湧出하는 大勇猛心을 原動力으로 어데까지 時艱을 克服하는同時에 永遠히 底止할줄 모르는 國民文化建設與隆에 邁進하기를 切望하는바이다。

感激기픈 今日의 記念日에當하야 各位와함께 異常한 決意를 奉戴하는바이다

西首都陷落後 獨伊方針意見一致
歐洲에서蘇聯勢力一切排擊
獨伊外相의會談結果

【伯林二十二日發同盟】伊太利外相 차노伯은 二十二日午前十一時 獨逸外務省에 外相노이라트男을訪問하고 前後一時間半에亘하야 重要會談을遂하엿다 席上차노伯은 西班牙內亂의進展에對하야 마드리드陷落後의 西班牙에關하야 貴下는 如何히 할豫定인가 我等은 카타로니아共和國의建設을 默認하야도 조흘것이라고 短刀直入的으로 質問하엿다한다 右提案에 基하야 伊太利와 獨逸의態度에 對하야 協議하엿는데 兩國은 叛軍이 新政權을 樹立한다면 어데까지던지 共同戰線을 펴고 人民戰線打倒를 期함에 意見이 一致하엿다고 傳해된다 다음歐羅巴政局에잇서서 全分野에 亘하야 隔意업는 懇談을 遂하엿는데 各種懸案에 對하여서도 兩外相의 意見이 一致하엿다 特히 다음諸點에 對하야는 意見이 一致하엿다한다

一、新로카르노體制에 對하야는 獨逸政府의 提案에 基하야 獨、伊兩國間에 雙務條約을 締結하고 兩國政府가 保障에 當할것을 主張할것 또 新로카르노體制에 蘇聯政府가 參加하는것을 極力排擊할것
一、東歐羅巴에 對하야 斷乎蘇聯의 侵入을 排除할것
一、國際聯盟에 對하야는 伊太利政府의 改組案을 極力支持하고 右改組案成立後 비로소 獨逸政府는 聯盟參加를 條約할것
一、도나우流域에 對하야는 獨逸、伊太利兩國이 提携하야 經濟的復興을 圖하고 流域各國의 安全保障을 講究할것
一、但 伊太利、獨逸兩國政府間에 特히 軍事同盟을 締結치안코 또 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帝國併合에 對하여도 當分間 觸치안흘것

會談의 成果에 對하야는 獨逸政府當局도 어데까지던지 滿足을 表明、兩外相의會見으로 獨逸、伊太利兩國政府의 提携는 다시 緊密化하기에 이르럿다 會談한結果 各方面의 懸案에 對하야 兩外相의 意見이 符合한것은 도리혀 一驚하엿다 말하고 伊太利代表도 會談은 極히 友好的으로 進捗하야 만흔 成果를 어덧다 고 稱하고잇다 따라서 會談한 結果는 西班牙不干涉委員會에 反映할것으로 推測되는데 아직 히틀러總統과의 會見을 맛지아니하엿슴으로 伊太利、獨逸兩國政府當局은 勿論 伯林各新聞은 會談內容에 對하야는 一切言及을 避하고잇다 차노伯은 二十四日夜 베르히테스·가르텐에 赴하야 山莊에서 히틀러總統과 會見 交涉經過를 報告할豫定이라 推測된다

政府軍猛擊에 叛亂軍總退却

【마드리드廿三日發同盟】西政府軍은 廿三日曉以來 全戰線에亘하야 俄然攻勢에轉하야 叛軍을 必死的으로 反擊을開始、안다라지地方政府軍은 叛軍占據의 카스트레라에 猛擊을加하야 奮戰하엿다 이戰鬪에서 叛軍은 死者五十五名 大砲六門 機關銃七十을 放棄하고 潰走하엿다한다 또 마드리드西南方의 政府軍은

產調第四分科會 廿三日午後經過內容

朝鮮產業經濟調査會第四分科會는 二十三日午後一時부터 再開하고 各委員의 意見陳開가잇섯는데 그經過에 對한것은 左와如하며 同分科會는 이로써 終了하고 二十四日에는 總會를 開하고 各分科會의 報告가잇슬터이다

一、實業敎育
◀實業敎育에 實習을充分히 課함이 重要하다
◀實業學校出身의 職業을 施行함이 必要하다
◀技術者의 待遇改善이 必要하다
◀鑛山水產敎育을 振興케할것을 要한다
◀工業學校增設을 速히 實現할을 要한다
◀高等普通學校의 高學年에 實業敎育을 施行함이 必要하다
◀朝鮮에서 理科의 敎育設備를 充實히함을 要한다
二、一般事項
◀學術試驗調査發明等의 諸機關에 日本內地와 朝鮮과의 聯絡을 密接하게할 必要가잇다
◀內外產業經濟의 調査에 關한 協議會와如한 機關을 設置함이 必要하다
◀海洋、森林、內陸의 氣象觀測機關을 設置함이 必要하다
◀農工鑛業各種產業의 綜合的調査研究機關을 設置하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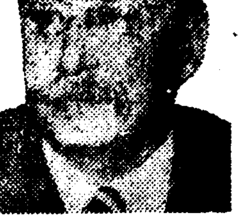
白態度突變에 英佛極度로唐惶
② 李元坤

白耳義中立宣言

白耳義皇帝의中立政策聲明과 自主國防宣言은 各方面에 意外의 反響을 惹起하게되엿다 이聲明에 누구보담도 가장만히 刺戟을 바든 나라는 佛國일것이다 佛國은 即時 閣議를 開催하고 中立宣言內容을 詳細檢討한後

一、白耳義政府의 所謂 中立의 意義如何
二、라인條約 第一條에 依한 義務는 獨逸軍의 라인國境進出後 一九三六年三月의 共同宣言으로 再確認되엿는데 右義務에 對한 方針如何
三、英佛白三國의 作戰協定과 中立政策과의 關係如何
四、聯盟規約 特히同規約第十六條에基하야 聯盟에對한 義務를 如何히 할것인가
五、新로카르노條約에 對한 態度如何

의五項目에 對하야 正式으로 白耳義政府에 照會하기로 決議하는一方



一、英國과 密接한 提携를 維持하야 右事態에 對策할것
一、白耳義가 英佛兩國과 事前에 何等의 諒解가 업시 單獨으로 今後 果敢한 行動을 取할時에는 注意를 喚起할것
一、現在 瑞西、白耳義兩國境에 設하여잇는 마지노國防線을 白耳義國境에 沿하야 英佛海峽沿岸까지 延長하기爲한 緊急築城工事를 實施할것

等을 決定하엿다한다 佛國이 그와가티 周章狼狽하는것은 첫재로 佛國은 從來의 盟邦白耳義의 協力을 期待하야 佛國國境線上에 要塞를 構築지 아니하엿든것과 둘재로 白耳義는 英佛獨伊와 함께 로카르노條約國의 一員으로 歐洲安全保障體系維持에 協力하야온 佛國과 步調를 가치하야 維持하여온 責任으로 充分 理解할수잇다

佛國다음에 多大한 衝擊을 밧은 한 나라는 말할것도업시 英國이다 지오늘든三日의 演說中에 白耳義는 佛國과 連結하야 英國의 海保를 期하려하지안코 英國의 援助를 阻止하는 外에는 他意가 업다」는 말과 「佛國과 同盟을 締結하는것으로써 祖國의 安全을 確保할수업다는」 곳 英佛依存으로 白耳義의 安全을 保障할수업다는것이며 特히 「同盟에 依한 軍事的援助는 侵略事實이 이러난後에 비로소 發動하는데 不過한다」는 一言은 一九一四年 大戰當初 永世中立國으로서 歐洲의政局의 渦中으로부터 超然하야 平和의 迷夢에 陶醉되엿든 白耳義가 一朝에 獨逸軍에게 蹂躪된 當時의 經驗과 最近 伊에紛爭問題에잇서 에디오피아의 末路를 想起하는데서 어든 必然的歸結로 集團的安全保障體制에 對한 白耳義에 失望을 闡明하는同時에 聯盟規約의 不徹底를 指摘한것이다 여기서 佛國과가치 歐洲에잇서 集團的安全保障體制에 最大支柱의하나인 英國이 驚愕하는것은 決코 偶然한일이아닐것이나 그보담도 英國은 白耳義의 中立宣言과 自主國防聲明으로 戰略上 佛國에 못하지안케 變化를 要하게되엿다 即英國은 防空政策에 잇서서 莫大한 打擊을 밧게되엿다 年前 볼드윈首相이 樞相의 職에 잇슬때 飛行機의 發達과 航空技術의 發展을 理由로 英國의 國防線을 라인沿岸까지 延長할 必要를 說破한것으로 보든가 또는 從來의 大陸作戰計畫으로 보아 白耳義는 國防上 大陸戰略上 方面에 아니라 英國에 對해서는 實로 唇齒의 關係가잇다 그리하야 有事時 空襲防禦陣의 第一線을 白耳義에 두기로 方針을 取하여온 英國이 歐洲政局의 危機가 發火點에 接近한 今日에 突然 舊諸를 저바리고 中立을 宣言하는것은 이國防의 第一線을 喪失함과 가튼 結果가 된다 비록 英本國은 도버海峽을 隔하고 大陸과 隔離하여 잇스나 航空技術이 驚異的 發展을 遂하고 渡海作戰術이 今日과 가티 發達된 現狀에 잇서서는 도버海峽은 一個의 河川에 지나지못할것이다 더욱 從來의 關係로 보아 外交的으로도 英國은 大陸과 떠나라야 떠날수업는 緊密한 關係를 갓고 잇스므로 一旦 大陸에서 紛爭事態가 發生될 境遇에는 英國은 이渦中에서 超然할수업는 關係를갓고 잇는것이 英國으로 하여금 白耳義의 中立宣言을 重大視하는 原因의하나이라는것을 附記해둔다 (寫眞은 불룸佛首相)

本社參觀(廿三日)

◆新高山公普校生徒七十五名 金箕鎬氏引率下本社見學
◆谷山公立普通學校生徒五十二人 鄭光烈氏引率下 本社見學
◆院坪公普校生徒廿九名 李起浩氏引率下 本社參觀
◆長湍公立普通學校生徒四十六人 孔泰龍氏 引率下에 本社見學

人事·集會

◆高尾甚造氏(新任總督府學務課長)二十四日午後二時五十分京城着
◆中野勝次氏(平北警察部長)新任人事次來社

夕刊後市況 廿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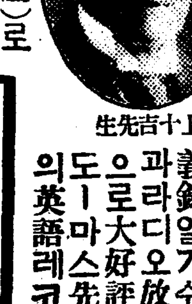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七一·一〇 (不變)
鐘新 一七七·〇〇 (四〇低)
日產 八四·三〇 (一〇低)
東新 一三四·七〇 (六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七八·〇〇 先限 七五一·〇〇
◆滿井 人絹 後引◆
當限 一六三·〇 先限 一五九·二〇

井上英語講義錄

月一圓廿錢·英語レコード贈呈

도라오는 世界의中心은 日本!! 只今이야말로 찬쓰、모도世界의 言語『英語』를始作합시다 英語야말로임이 近代人의 常識으로不可缺의것 現 中學以上에는 가장 重要한學科엽니다 今日以後 英語를아지못하는분은 立身의第一資格을 이러버린사람일것입니다!!

オリムピック決定の一九三六年 英語の必要を感ずること痛切!!


井上十吉先生

日本一의英學者井上十吉先生이 쓰신『井上英語講義錄』알기쉬운과 라디오放送으로大好評인 도-마스先生의英語레코-드(無代贈呈)로 自宅서獨習하면
◎一個月로英語를읽을수잇고
◎二個月로英語를쓸수잇고
◎三個月로英語를말할수잇다
이가티훌융히熟達할수잇슴니다
먼저內容見本을 一覽하시라

特別附錄贈呈
講義錄月一回 雜誌月一回 (左の附錄贈呈)
井上英語讀本(六冊)
英語レコード(十二面)
英文復書帳(六冊)
英習字帳(二冊)
英語單語カード
受驗單語カード
受驗熟語カード
井上英和小辭典(六冊)
月刊雜誌イングリッシュ
米國官選語集(一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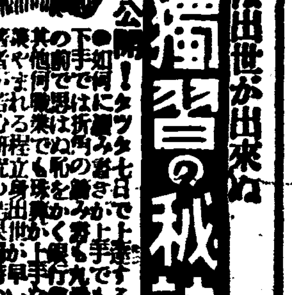
內容見本進呈 (申込)
業書로申込하면 七十頁以上의 훌륭한見本을 急送합니다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十九番地
井上通信英語學校
振替東京三〇二八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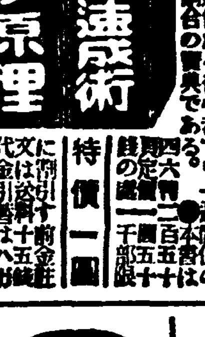
秋風이 부러올때
工夫에아츰한時間을빌려주라
世界의言語
立身의武器
英語는 곳당신의것!

井上英語教育レコード吹込者教授トーマス

기침에 코데친 (コデチン)
藥價 三十錢 一圓五十錢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圖解で極意公開!





大景品 極上等算盤
原理速成術 九九原理
特價一圓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軍手의製造
◆年中無休……收入確實◆
京城府黃金町五 朝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二七五三番 振替京城二四三六〇番

生徒募集
京城第一自動車學校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番地 電話本局五三三六〇番

發明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
鮮滿特許事務所

◇十月二十二日부터三日間!
朝鮮映畫大會週間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小人半
◇金剛키네마社超特作映畫!
現代劇 靑春의十字路 全十卷
監督 安鍾和氏
主演 李源鎔、金蓮實、申一仙
◇五洋映畫社超特作大名畫
史劇 그後의李道令
◇靑鳥映畫社超特作大名畫
鄕土劇 바다여말하라 全十卷
原作…脚色…安夕影氏 監督…李圭煥氏

新富座 寬洞 電話本局2一五五〇
劇團靑春座公演第六週
十月二十四日부터藝題交換
◇李雲芳作 悲劇 女子여!굿세여라 四幕
◇洛山人作 貧富의境遇 一幕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話光二一五四
廿一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時 午後一時半 六時廿分
血의敵

團成社

十二名選士中에 一等榮譽는누구?

今年新人과 昨年入選者의競演도刮目處

오라! 藝術의聖戰場으로

콩쿨大會의決選 今夕本社講堂에서

지난이십일일 본사대강당에서 열린 본사주최 제이회음악콩쿨 예선회(豫選會)에서 전조선으로부터 참가한 오십팔명중 다른 참가자를 물리치고 우유히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영예의입선자 열두명이 한자리에 모혀꼿다운경연(競演)을 할음악콩쿨결선대회는 드듸여 예정과가티 이십사일오후일곱시부터 역시본사대강당에서 그호화로운 막을열게되엿다 입선자는 성악과에열명 바이올린과에 두명으로 성악과에는 작년 제일회 콩쿨대회에서 이등 입상을 한 리인범(李仁範)군이 끼여잇고 바이올린과에는 작년 제일회 콩쿨대회에서 일등상을 탄 문학준(文學準)군이 또 등장하게되엿만큼 과연새사람이일등의 영예를 차지하게될것인가 또는 작년의 입상자가 그대로일이등을 보존할것인가 자못관중의 흥미를도읍는것이다 새사람은 새로운의긔와 욕망으로 입상되엿든이는 로련된 예술과 명예를걸고 서로 겨고틀타로 그들이 몃해를두고 또는 몃달을두고 싸코닥거오려 향을에끼여서 총발휘하야 회장은 참된의미의 음악팬들의관심은 이할것으로 음악전당을연출 결선대회로 아니진중될수는 업는터이다 그리고 당일의 입장료는 오십전균일이다

阿片代가말성 棍棒으로打殺

【長湍】지난십오일 오후칠시경 장단군진남면 하거시(長湍郡津南面…)에서 행상하는 중국인숙회(宿會)는 저녁밥을먹고나가선후 오리상거인 당지도내리(內里)부근노상에서 어떤자에게 타살을 당한것을 실혀 행인이 발견하고 당지하장서(下德里)에 고발하자 서에서는 즉시사체를 운반하여다가 공의경대규(鄭台奎)씨 집도하에 해부한결과 타살이 분명함으로 범인체포에 대활동을하고 잇든바그후 목천서장 (李田…)지휘하에 곡구(谷口) 장서에 (…) 마인화(馬仁化) 등 순사들의 민첩한 활동으로 당지도내리(內里)에서 범죄의 혐의가 농후한 피의자 오치덕(吳致德)을 체포하여다가 이래취조한결과 모든범죄사실이 아래와가티 나타낫다고한다 전긔범인오치덕(吳致德)은 피해자 숙회(宿會)에게 아편 팔십원 어치를 팔고 대금중에서 십오원은 매매당시에 밧고 잔금십오원은 외상으로주엇든바 내지안흘뿐아니라 성칙월피일 내지안흘것이 만흐니 돈을가지고아 보지안함으로 지난 외까지도 오는밤 그곳에다 리고가서 자긔에게 돈을 내라고 시비를 하다가 곤봉으로타살한것이라고 한다

水原사는百萬長者 電車에치여客死

赤十字病院에入院四十分만에

수원군 일형면화장리(水原郡日形面花場里)에 사는 백만장자 리배영(李培榮)(六五)이라는 로인은 이십사일오후 네시사십분쯤 남대문통 오정목 삼십팔번지 압에서 빈창섭(賓彰燮)이가 운전하는 경(京)일백사십사호전차에 치어 빈사의중상을 입고 곳 토성에 잇는 적십자(赤十字)병원으로 떠메어다가 응급수당을 가하엿스나 약사십분후에 절명하고말엇다한다

朝共同盟被告 大部分은控訴

【淸津】지난십구일 청진지방법원에서 판결언도를바든 조선공산주의자 동맹사건(朝鮮共産主義者同盟事件)피고(被告)중 집행유예(執行猶豫)와 형긔일년반중 감한 삼십팔명을 제외한 남어지 고는 현춘봉(玄春峯)이하십칠명이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 공소(控訴)수속을마치고 장원태(張元泰)이하사십명은 아직미정중에잇다 한다

本業은洗濯所 副業으로窃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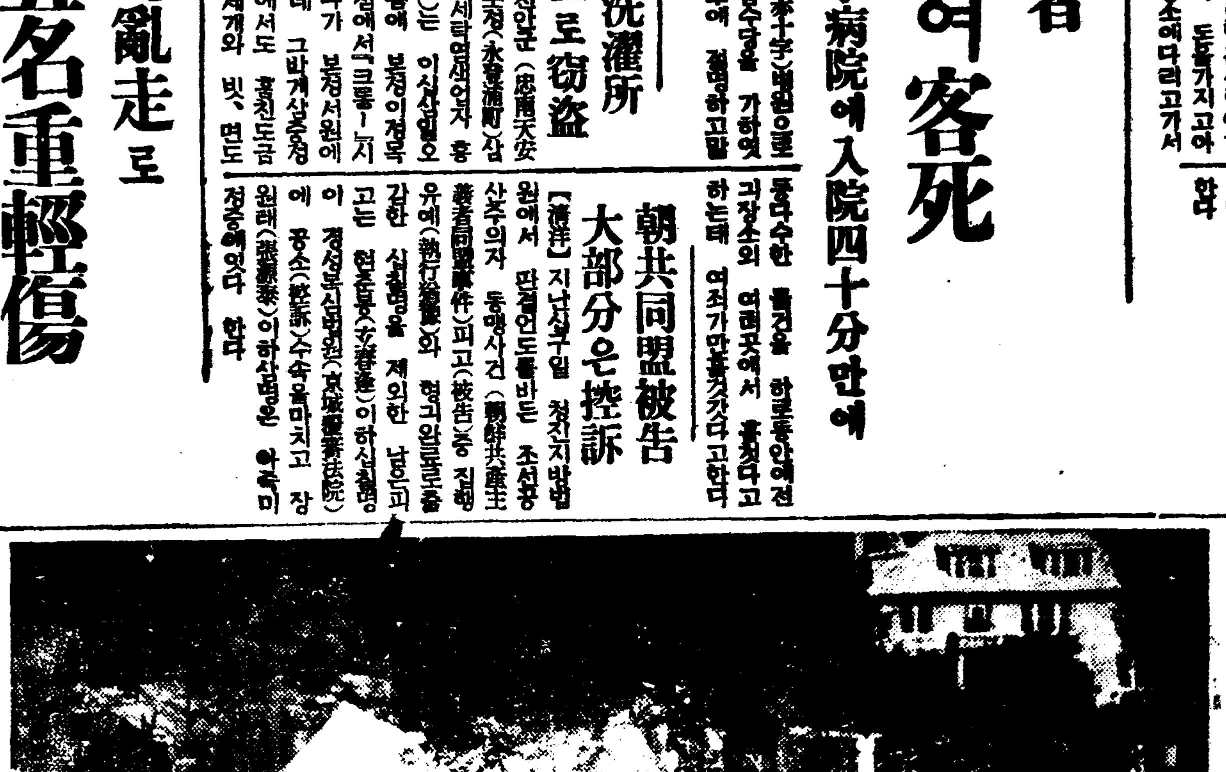
부천군 다주면안동(忠南天安郡)에두고 영등포정(永登浦町)삼십팔번지에사는 세탁업자 언작 홍천표(洪天杓)(二七)는 이십사일오후여섯시사십분쯤에 본정이정목 전합(川合)시계점에서『크롬』누지계한개를 훔치다가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엿는데 그밧게삼정(三中井)백화점에서도 훔친도금(鍍金)시계줄 세개와 빗、면도 등이잇다 한다

驚馬亂走로 五名重輕傷

昨日、貫鐵町에서

이십사일 오후한시경에 시내 관철정(貫鐵町)일백팔십구번지아페서 시내신당정(新堂町)삼십사번지의 이십일동에사는 경성부인부 최준이(崔俊伊)(二九)가 마차를끌고 종로네거리에서부터가 돌서는 그곳에 세워잇든 자전거가 넘어지는소리에 놀래 뛰여가서 삼시간에 그부근을 통행하든 적고 다섯 사람을 치여서 부상식히고 겨우 진정되엿는데 이통에 마부도 오른손가락 세개를 분질럿스나 다른사람의 부상은대단치는안타고한다

負傷者=▲市內旭町二丁目六洋服職工李弼壽(三七) ▲貫鐵町二一 勞働者李老馬(三二) ▲觀水町一二七 中國人姚錫武(三四) ▲仁寺町二三九 飮食店雇人表守鳳(三四) ▲貫鐵町一〇一 雜貨商 金珏守(三三)



梨花五十週年記念 大運動會光景

密陽富豪脅迫狀事件

背後는意外單純!

警察追窮은依然猛烈

【密陽】지난십구일에발생된 밀양(密陽)경찰서의 협박사건은 이미루보한바어니와 이제 그사실내용을 탐문하건대 협박사건이 이러난 약일주일가량전에 밀양군무안면 매진리(密陽郡武安面來進里) 부호 리종대(李鍾大)씨에게 전북(全北)공설단(共設團)이라는 명의로 모운동자금 일만원을 육구일오일밤에 매진리압신작로로 가저오라고하고 만일불응하면 살해하겟다는 협박장을 령산(靈山)우편소 소인(消印)이 마진 협박장이 배달되엿는데 그것을 밧고 미처경찰에 신고를못한채 잇섯든바 밀양경찰서에서 이사실을탐지하고 그돈을제공하라는 당일인 십구일새벽에 물연그와 가티 전긔리종대(李鍾大)씨를위시하야 장정이십오명을 잠복시켜 범인을 검거하는동시 밀양읍에서도 두사람을 검거하엿스며 그전날대구(大邱)에서 리경희(李景熙)(二一)라는 청년을압송하여온것이라는데 또한탐문한바에의하면전긔협박장은 전긔리종대(李鍾大)씨에게 평소에 한원을가진 모(某)의소치인듯도하다하며 또는 밀양경찰서에 그협박장에관련한 모종의 무서도 잇섯다는것이라는데 그진상은 아직알수업스나 여러가지 점으로보아 사건은어떠한사상적배경이 잇는것가지는 안은듯하며 의외로 단순히해결될것이도보인다하나 밀양서에서는 그후도 활동을계속하여 이십일에는동서고등계원이 창녕군부곡면부곡리(昌寧郡釜谷面釜谷里)에서 리순두(李淳斗)라는사람을 검거해오고 이십일에는 전긔매진리에서 윤경이(尹京伊)라는사람의 부처를 검거하여다 취조중이라는데 전일검거된 사람중에는 대부분석방이되고 아직검거되여잇는 사람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李鍾大 李彦忞 李景熙 李𢍰 外數人 李鍾大 李彦忞 李景熙 李𢍰 와 尹京伊夫妻

中央基靑農村部서 中堅靑年을養成

來月에第五回生卄名을募集

講師는各界專門家

조선중앙긔독교청년회 농촌부(中央基督敎靑年會農村部)에서는 농민으로하여금 정신을 수양케하며 경제적협동과 부업에 대한 지식을 엇게하여서 우리농촌의 중심인물이 되도록 하기위하야 오년전부터 시내연희정(延禧町)에다가 농민수양소(農民修養所)를 설립하야 한갓 농촌지도청년의교양에 힘써어던바 그성적은 매우 볼만한것이 잇다한다 그런데 금년에도 오는 십일월 십오일부터 제오회 수양을 시작할터로 일반지망자는 오는십일월오일까지에 만히응모하기를 바란다고하며 그규정은 다음과갓다

規程

一、入所資格 農村에居住하야農事에從事하는 年齡十八歲以上으로品行이 단정하고 쉬운文字를解得하는者로함

二、講師 延禧專門學校敎授와朝鮮基督敎靑年會聯合會幹事와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幹事와 其外有志專門家諸氏

三、科程 修養講話、農村家計法、唱歌、生活改善、農村家庭工業、協同組合、農業簿記、園藝、肥料、普通農事、養蠶、畜産等

四、期間 十一月十五日로부터이듬해 一月十四日까지로함

五、寄宿舍 入所하는者는 全部寄宿舍에드러와야함

六、定員 二十人으로함

七、費用 本所에드러오는者는入所費、月謝金을밧지아니함

八、食費 三個月먹을糧米弗代金으로내고自炊하게함(但飯饌價와燃料費는本所에서補助함)

"不二"小作人千六百戶 代表四名入京陳情

農場側의無理를六個條項으로列擧

卄三日、總督府當局을訪問

평북룡천(龍川)군에잇는 불이농장(不二農場)소작인 일천육백호에서는 전부터도 농장측의 가혹한 소작료요구와 농장직원들의 비행한 행패로말미암아 항상극도와 대치되여오든바 금년에는 일긔가불순하야 첫번에 파종자는 전연못쓰게된 관계로 두번재 전부 파종을 하엿는데 재파종자갑과 및보식묘구입경비(補植苗購入經費)는 소작계약제삼조에 쌀아 당연히지주가 부담하여야 할터임에 불구하고농장측에서는 재파종자갑을 전부소작인이 부담하라고 무리한요구를 함으로소작인들은 군과및도에 진정할뿐만 아니라 룡천경찰서장을통하야 농장측과 여러번절충을 거듭하엿스나 농장측에서는 아모런양보도업시 전부를 소작인에게 물리겟다함으로 룡천군부라면중단동농사개량제일조합장 (龍川郡府羅面中端洞農事改良第一組合長) 김용천(金用天)씨이하 이십구명은 너머나 짓밟피고잇는 소작인일천육백여호 일만여명의 생활문제를 좌우하는 소작인의 생활을 위하야 농장측의 비행을 지적하고 재파종자갑은 지주가부담할것 농장직원은 소작인을 함부로때리거나 또는 감금하지말것 바람과벼에 말려가버워진 근(斤)수를 소작인에게 강징하지말것 현재수세(水稅)대검하야 소작료를 오할팔분을내는데 이것을 오할로 내릴것등 여섯까지의 요구조목을들어 진정서를 작성하야 전부 서명날인한다음 전긔김용천씨외세명을 대표로뽑아서 이십삼일 총독부에 진정식히엿다한다

建築材料等燒失

昨夜、新橋町에火災

火因은담배불인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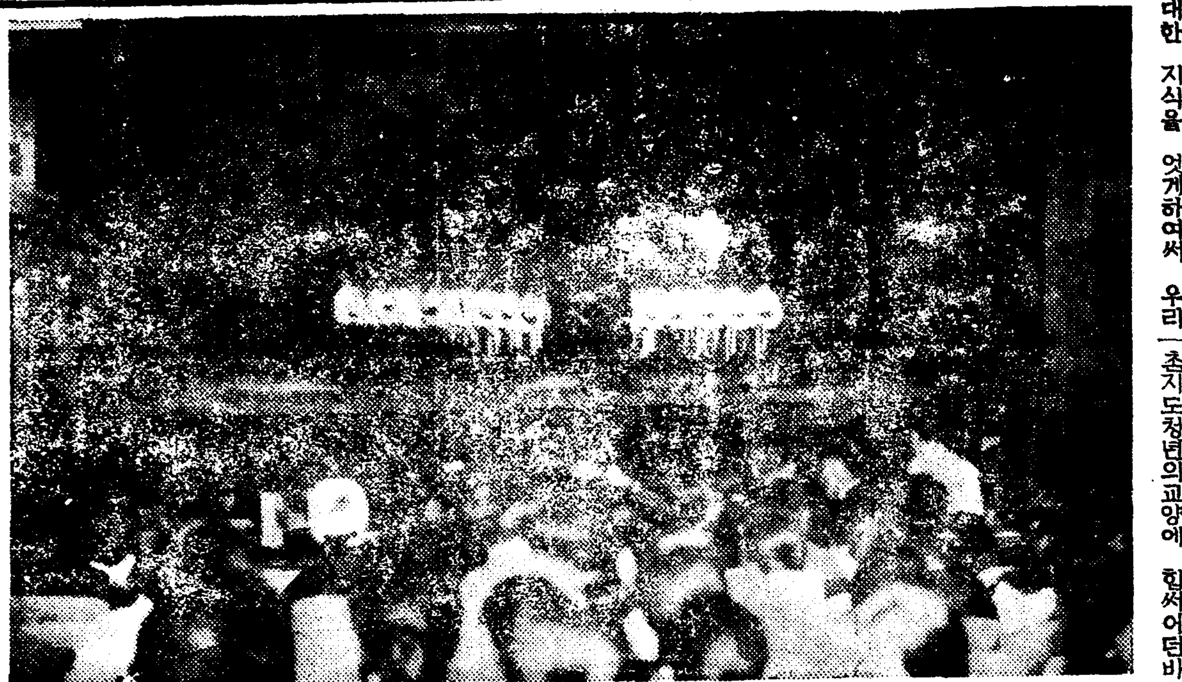
이십삼일 오후아홉시오십분쯤 부내신교정(新橋町)팔번지경성건축주식회사 지배인 리녕진(李寧鎭)씨의 건축장목수 집에서 불이나서 목수집과 재목등을 태우고 가든열시 이십분쯤에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약천원가량이며 인명의피해는업다 동회재의원인은 담배불이 톱밥에 옴겨부튼것갓다고하나 확실치는안허서 방금조사중이다

蘇聯軍事密偵에 懲役五年을求刑

卄二日淸津法院에서

지난 사월 이십삼일 함북경원(慶源)에서 나진(羅津)으로 드러오든 수상한 사나이가 경찰의 손에 붓들려 엄중 취조를 바든결과 그는 "쏘비에트"로시아"의 군사밀정(軍事密偵)으로 혐의가 자못 농후하다 하야 이래 청진지방법원예심계(淸津地方法院豫審係)에 회부되야 심리를 밧고 잇든바 그동안에 심종결을 보고 이십이일 오전열두시에 동법원 제일호법정에서 호전재판장(戶田裁判長)주심으로 사실심리를 마치고 립회한 상량검사(相良檢事)로부터 징역오년(懲役五年)의 구형(求刑)이 잇섯든바 사건내용은 다음과 갓다한다

그는 본적을 함남 삼수군 자서면 아안리(三水郡自西面阿安里)에 두고 연해주(沿海州)니코리스크-우스리-녹(州)"이와 노후가 카스케-카"에사는 최문성(崔文星)(三〇)으로 "니코리스크"군사위원부(軍事委員部)로 부터 장교(將校)로부터 군사서이인 홍련을 밧고나후 연주군사위원부 (軍事委員部)에서 경원(慶源) 홍춘(洪春)등 방면일대의 군사상시설 (軍事上施設)과 함만시설 (港灣施設)등을 내탐하야 "쏘비에-트"측에 보고할사명을띄고 드러오든 중 전긔경원 라진의중간인 경원군안농면성천도서장(慶源郡安農面城川島署長)에서 검거되엿다 한다



中央保育學校音樂會

(중앙보육학교(中央保育學校) 주최와 본사학예부후원의 제칠회교내음악대회는 비상한인긔를이끌은가운데 작이십삼일오후일곱시반부터 부민관대강당에서열리엇다 아날동음악회로 몰려드는청중으로 태평통일대는인파를이루워 장외에까지덥치잇서 입장못한이도 수백에달하는파기록적성황이엿다 만뢰의박수소래와함께 중앙보육교장임영신(任永信)여사의개회사로서 막이열리니 푸로그람에따라 여성합창(女聲合唱)、이중창、쏘푸라노독창、피아노독주、바리톤독주、무용유희등으로 만장은재청삼청하야 박수소리가 끄칠줄을모르다 이리하야 소정의순서를마치니 때는열시엿다 (사진은 성황의중앙보육의회장)

紛糾解決前에는 新品販賣를禁止

新蔘四萬餘斤은倉庫에山積

開城白蔘統制의餘波

【開城】 루보―개성 인삼경작자 (人蔘耕作者)를 주체로 조직된 백삼동제회사는 재래일반판매업자의 판매권을 박탈하는 사할문제라하야 한때경분된그들은협약하여 연합활동할듯이 각으로당국에 서명서를 제출하였다는바 아직 양방이원만한 해결을짓지못한중 벌서 신삼긔(新蔘期)는 한달이지나서 새로제조된 백삼신삼사만여근이 전시의손에거처통하사판매하게되엿스나 당국은 쌍방의 문제가원만히 해결되기전에는 한뿌리도팔지말라고 제지하므로 제조된 삼가는 그대로 창고에 싸혀잇다하며 이것은 개성상업계에 엄대수리시대요 통상사리할수잇다한다

風磨雨洗로 허무러지는古蹟

平壤의자랑을保存하자!

【平壤】 단긔고도 반만년의 외 이십여건은 다시볼수찬연한력사를 웅변으로 증축하여 일반외래자의 탐승명하고잇는 고도 평양의시물을 만들고저 평양고적보정을 이르키는 가지가지의 존회에서는 평남도당국에보고적은 준풍추우 수천성상조금을 신청중이엇스나결에 파손될대로 파손되여일넥긔가 갓가운 최근에까지 밧의 상천지가되여 잇거니 한동의 회답이업고 부당국와 련광정(練光亭) 대동문으로서도 금번중에는 공사(大同門)은 총독부의 손으에서 칠성문과 사허정이다로 수리 또는개축되지만남 불가능에 빠지게되여 부득이 금번을 그대로 경과할소 금전이만히 허비될터이은 고적중에서 칠성문(七星門) 사허정(四虛亭)=一모양인데 파괴정도가 명춘요 남은고적의 수리는 그名乙密臺=의 건축물과 역까지 견되여잇지가 문제시 려커만큼 금전이 필요가업전에잇는 긔자정(箕子井)과 되여 평도일반의 마음을초 슬모양이어서 도당국에 급긔자정전(箕子井田)의 유적 조케하고잇다 그런데 수리할곳은가운데 수한고보를통속케되엿다한다

(사진 상은 칠성문 하는 을밀대)

가정과위생

더위가심한날에 부인병의서름을 누구에게하소연하리요!

아해못배시는것도부인병이원인

엇더케하면 속히 곳칠수잇을가

열로지마자령을 나부끼고 지내는바람색치에 장단을맛처 푸른나무닙새반작이는 언덕울넘어서 힘차게활개를치며 크게숨을쉬이고 새로운희망과 건강미를준비하시사 나날히 굿세히 이러스는 우리나라를위하야 싸워줄일군의 튼튼한 어머니가되시며 평화한가정의주추돌이 되서야할것입니다。

그러나 남모르는 병마로 고통을밧고계신분에게는 지루한피약의여름이온 한탄이 입에똑게되며또거운바람에 짜리하엿뚤에땀배오르게하야 곳업는 자가신세타령의서름을 눗기게 할것입니다

……◇……

이런서름 은녀성만이 아실줄밋사오며 부모시하에 계신분이나 출가하시여 시부모와남편시중에 끌룩하시는 분이매변 이때면다움과가튼부인병의증세로 고통을바드실줄밋습니다

화 이 조치못하시고 손과 얼굴이 거칠어저서 녀자의 미려과에 현저한 손상을 밧으시고 기중이나시고 그전에는 그러치 안튼분이 성미가조급하야지며 섬울잘내시고 밤에잠을잘주무시게되는것이부인병의 첫 증세입니다 또한

색 이 고르지 못하시게 되고 월경때면 몹시 압게되며 늘 아래배와 허리가 아푸며 쏘시고 냉하게되는수도 잇읍니다。

경월 터구나 국부가붓고아푸거나 쓰시기도하고 대하증(냉병)이 흐르게되나니 처음에는 코가종고것이나오다가 차차색도 누르다가 푸르기도하고 붉은빗이나게되며 몸소리칠만큼 악취가 나게됩니다。

……◇……

그뿐만아니라 몸은점점 허약하여지며 가슴아리가생기고 적이돌게되며 구미를일케되거나 소화가잘안되고 번비증이 생기게되는것입니다

더욱히 소변이자지지고 소변을보아도 시원치안흐며 갓즐오중을늘때면 고통을늣기는수도잇읍니다、터구나

부부 화합에 자미롭든가정이고 아해까지못배게되는것이 모도부인병때문에 이상애말습니다。

비와가튼 모든동세가 생기게되는것입니다。그럼면어뗘케하면조흘것인가?

……◇……

그러나 우리조선부인의 순량한 미덕으로 괴로움을 남에게숨기고 고통을 혼자서참어서 쓰라린세월을 보내는동안에 부인병은한층성이되야 여러가지비참한 불상사를 일으키는수가만흔 참으로한한노릇입니다。

모성애를 가지신 여러분 은모든녀성 만성되시기전에

땀배오르는 은혜날에 몸이냉하고 아랫배가거북하며 대하증(냉중)이내려서 고통과번민으로 쓰라린세월을 보내시는분이 업마나많읍니까!

혹시 녀자면보통냉증이잇거나 하시고 무관심하게지나시는분이 만호나 사실에잇서서는 부인병때문에 그런것임으로 하로이를날이갈사록 병세는더욱 심하게되야 만성고칠이되고마는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홍집이난곳에서 진물과고름이흐르는것갓흔것이니 이어지 대소롭지안케생각할수잇겟습니가

터구나 이런것들대하증속에끼칠뿐만아니라 몸전신에 해를 게만드는 작용을하고잇습니다

그럼으로 비참한 불상사를일으키기전에 집에서라도 속히곳칠수는 업슬가

……◇……

지금까지에는 흔이 부인병치료에 먹는약=환약、가루약、물약、환약등을 써오셧스나 자궁속에 병균이들어가서 생긴부인병치료에 아모리 약을파보긋이먹어도 직접그곳의 병회근이라리가 빠질리가 잇겟습니가!

또한 의화상으로 직접녀자의 이용하나 지금까지에는 우수한약품을 가진것이 적고 터구나

『와세돈』은 미라가튼깨끗한 색이못는약으로 한개를국부에넛코 주무시면 조금도 불쾌한 감이업시 곳 녹아버려서 약긔운은 직접환부에작용하고 몸전신에 퍼저서 모든 부인병의증세를 곳 낫게하여줍니다

그럼으로 속히 병고에서 버서나실여러분은 조금도 주저마시고『와세돈』을 써서 치료하시사근치의기쁨을 어드시십시요

……◇……

조선국민으로 병세를 몰지하시며 본인병자서로쳐서 효과를 거저 시드리고 의심치말고 우리와드리며 본보독자우대로 송료자십전실을 부담하시는 분에게는 낡어지 송료부담하야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와세돈』은 근래 동경제국대학 구주제국대학의 각부속병원부인과와 적십자병원부인과와 권위잇는 부인과 전문병원에서 림상치료에 사용되고잇는약으로 수만흔 실험환자의전래의 기쁜칭찬과 감사로 환영을 밧고잇는 부인병약입니다

그만큼 효력잇는 부인병약은 업는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치 좋아하야 동한을 쓰게한것이 하나도 업는사실로도 아러 미안하야 낫지동안에 와세돈을 사용하든것 이 방에서 모든 부인병에 곳 잘낫는수가 좀만엇읍니다 그러므로 가나오며 거분양들이나와서 속히 집내에서 잘곳지틀안코 찌거이 려병세를 심하게하는수가 잇고 대하증 빨어드리게하야 오히러

나 약한개로 며칠이쓰게하든가 나 여러개로 한번에쓰게하야 … 쓰라린세월을 … 시 전신…

전심으로 치료를하서야되나 일한히 남의게 몰래보이지안코 집에서간단히 곳칠수잇는 부인병약입니다

부인병의증세를 살피시는것은 건강에 첫거름을 밟는것입니다으로 써 놀지면을 동한히 하시지마시고

제일조흔약과 치료법으로 치료 하서야되나니 잘증세를살피시고 적당한조선과합개 속히 근치하여 버리시기를바랍니다。

수업을것인가! 이것에는 두말업시 최신하였로 연구발명된 부인병약와세돈(球)을 자신잇게추천합니다

『대하증』이엇오면 아해를못낫케됩니다

부인병에걸니면 반듯이 대하증이 생기게되나니 중환이되시기전에권위잇는 대학병원에서 만흔환자를 구원하고잇는부인병약『와세돈』로 곳치시면 자택에서도 병원치료와똑가튼 치료가되야곳낫옵니다

부인병의특효약 와세돈球

(東京帝大醫學博士 …)

약가― 十二球 一圓二十錢 廿四球 二圓二十錢 卅六球 三圓四十錢

(發賣元) 一圓四十錢 …

조선국민으로 一個 … 東京 …

京城府 … 河原商店

京城 … 大學藥房

北部一帶道路鋪裝 五線路今年內竣工

翠雲町↓齋洞、西大門町↓樓上洞、孝子町↓通仁町等 紅塵街에一條活路

경성부토목과에서는 금년부터 북부일대에도 하수도(下水道)의 공사도하고 포장(鋪裝)공사도하는 동시에 이로말미암아 불결하고 먼지만흔 북부일대도 차차 조흔거리로 변해간다 수일전부터 취운정공원(翠雲亭公園)어구로부터 제동(齋洞)어구까지 연장팔백미돌의 도로포장공사를시작하야 진행중이며 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으로부터 루상정(樓上町)에이르는 연장일천사백오십미돌의 도로포장공사도 방금 진행중에잇다 그리고 효자정(孝子町)에서통인정(通仁町)에이르는 연장오백오십미돌의 도로의포장공사는 순화원(順化院)앞하수공사가 끗나는대로 불원간에 착공하기로되엿고 경학원(經學院)어구로부터 신영원(新營院)에 이르는 연장삼백미돌의도로도 하수공사만 끗나면 포장공사를 하기로되엿고 이정목 락원정(樂園町)어구에서 제동네거리에 이르는 도로도 방금 하수공사를 하는중인데 그것이 끗나는대로 곳 포장공사를 시작하기로되엿다 이상의 모든 공사는 전부 금년안에는 다끗낼 예정이다

漢江橋通行量 車馬만每日七千

步行客은平均七千八百十三人 繁昌한京南名所

이십삼일부터 새로운외장으로「데뷔」한 장안의새로운 명소한강교(漢江橋)의 호화판(豪華版)을 예증(例證)하는 수자가잇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조사에의하면 한강교도교자(渡橋者)의 일일평균수는 자동차 이천사백이십대 우마차(牛馬車)일천사백칠십삼대 자전차이천구백사십오대 보행자(步行者)칠천팔백십삼인 이라는 크다란수자를보이고잇다 이로미루어보아 인접(隣接)각지방의 발전에따라 이한강교의 리용자는 점점증가할것이며 그로말미암은 새로히 건설한 한강교의 중요성이더욱 중대할것은 가히짐작할수가잇다

怠慢한淸掃作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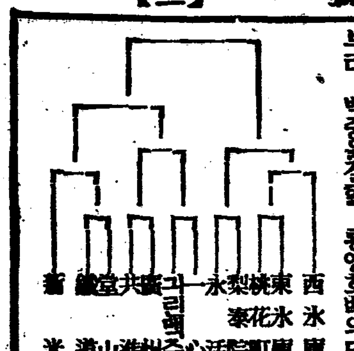
糞尿取扱을二週日式이나積滯 東部住民의非難聲

최근 시내 창신정(昌信町)을 비롯하야 동부경성일대에는 변소의 분뇨취급을이주일이상이나 처가지 안허서 이로인한 주민의 곤난이 막심하야 경성부동부청소출장소(東部淸掃出張所)에 대한 비난이 자못 높아가는 데 경성부에서는 대경성의 면목을위하야 도로확장이니 일반 방역이니하야 외화와 추상적선전에 급급하는반면 시민의 일상생활에 긴밀히 밤웅되며 더러움은 물론이요 방역(防疫)상에도 큰의영향이 잇는 전괴와가튼 위생청소에 극히 등한한것은 그실제가 입부음과 일개출장소의 태만이라고만 할수업는 중대한 문제라는것이다

永登浦支局後援 纖湖少年蹴球大會

强豪를자랑하는팀參加 今廿四日부터開催

【永登浦】 과보ㅣ영등포 체육회(永登浦體育會)주최와 본보영등포지국후원으로 개최되는 제이회 귀호소년축구대회(纖湖少年蹴球大會)는 드듸어금이십사일정오부터 백중종결할 룡양호반의대격전이 열릴 영등포공립보통학교운동장에서 전개될터인대 참가되는단체는 작년의우승팀인 동빙고(東氷庫)군을 비롯하야 멀리광주(廣州)서까지 참가하야 모다십이팀으로 작년대회에비하야 열마간적어지기는 하엿스나 모다중부조선소년운동계에잇서서 상당한련사와기술을 가진 강팀뿐만으로 일즉이잇서 보지못한 호화판이 전개되리라 고긔대되는대 참가되는단체의추첨결과는 아래와갓다고한다



音樂家協會主催 朴泰俊氏歡迎會

다년간 미국(米國)에서 연구를싸흔후 얼마전에 조선에돌아온 음악가 박태준(朴泰俊)씨를 환영하는 모든이 조선음악가협회(朝鮮音樂家協會)의주최로 오는이십오일 오후여섯시부터 시내 ……

第二回
全朝鮮音樂競演大會
二十四日午後七時半 (入場料 五十錢均一)
於 本社大講堂 朝鮮日報社

仁川 第一回 全仁川拳鬪大會

▲時日 今夜 午後七時
▲場所 武道館左側廣場
◇主催 仁川體育會
◇後援 朝鮮日報仁川支局

仁川 童＝話＝의＝밤

▲時日 今夜 午後七時
▲場所 松峴禮拜堂
◇主催 松峴敎會幼年主日學校
◇後援 朝鮮日報社仁川支局

穀港仁川의煩悶

出廻正租가 全無한狀態로 埠頭는閑散勞動者들도嘆息 凶作과檢査制가原因

【仁川】 조선여구의팔할이농민이란것과한가지 전조선각항의중요무역물은 곡물이대부분이라함은 일반이아는바와갓거니와 작년도로부터 정조강제검사제로인하야 전조선각항의출회정조가 격감함으로 적지안흔 타격을밧고잇다 그중에도 가장심한곳이 인천이라는데 더욱이추수기를 압둔인천부두의정향은 례년가트면 대활기를 띠고잇슬것이나 금년은 흉작(凶作)이 또한원인이 되고 정조강제검사제가 또한원인이되여잇고 이우에 또한 각촌락에 부군단위로써 조직된 미곡통제조합이 생기여 정조를 저장하야 두는 리유가 가장 큰원인이라한다 이제전인천각계의 곡물에대한 출회를 조사하야 보건대 근일은 인천항의 철도편의 정조회착(廻着)이 삼차내지 십사차에 불과하야 례년에 비하면 삼분의일도 되지안는 형편이요 또한 기선편의 회착을 연안조합(沿岸組合)에 물어보면 황해도(黃海道) 동척(東拓)저장조가 매일천여표식 입항할뿐이요 농촌으로부터 회착되는 벼는 전연 업는 상태이라한다

따라서 화인(丸仁) 곡물협회(穀物協會)의 조사에의하면 금년도의 정조의 회착은 다소잇스나 례년에 비하면 문제도되지안는다는바 이와한가지 큰타격을 밧는것은 인천의사십여개 주업자와 이십여정미소와갈중개업자라 한다 이에따라 부대의 타격을밧는것이 또한 일반의수천종업원이라는바 과연인천의삼분지일이상이 곡물계로써 생활하야 가는곡항인인천의 타격은 상상이상으로 물으로 적지안흔 문제이라한다

種痘證업스면 渡航을嚴禁

仁川署서도實施

【仁川】 수변내로 일본내지도항이 적지안흔문제로인하야 가장 극난한형편인대 이후로는 또한 가지조건이증가되엿다한다 이는 로동자또는 학생을물론하고 종두증이업스면 이후로는 엄금하리라한다

新築貞洞公會 十一月初에上樑式

공비삼사만원으로 지난 봄부터 시공하야 봉래정(蓬萊町)원산에 신축중인 정동(貞洞)공회 ……

南出張所落成在邇

……

光星學院運動會

시내 광성학원에서는 이십오일오전아홉시부터 아현 …… 운동장에서 …… 개최할터이라한다

◆今日의運動◆

▲朝鮮日報社主催의 第十七回綜合競技 …… 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

▲朝鮮體育會主催 綜合競技 …… 午後一時부터 YMCA運動場에서 擧行

雙虹舞 【21】

方仁根 作　金奎澤 畵

運命(六)

「그러면 저ㅣ이 면장어른께 여쭐말씀이 잇서서왓는데요」

「응 무슨말이요」

「저로서는 좀말슴여쭐기가 황송하오나 좀 중대한일이되여서 말슴아니할수가 업서서 왓습니다」

면장은 깜짝놀래고 정색을하여

「중대한일이라니 무슨 면소에일이 생겻소」하고물엇다。

「아니올시다 이건 면장어른댁의 일입니다」

「응 우리집일이라?」

「네 다른게아니오라 따님 혼인 일사에대해서……」

「내딸 혼인일사라 아직혼인이야기는 업는데」

「글세 저ㅣ가하한테가 잇서서 말씀하려고 하는것입니다。이왕 따님도 마땅한곳이 잇스면 출가시키실곳하구해서 저가튼게될 알겟습니까만 너무도 조흔자리가 생겨서 말씀이나 여쭈어볼가하구요」하고 윤호는 면장이 불쾌하게생각할가봐 염려스러워 수다하게 늘어노핫다。

「응 고마운일이로군。암 내딸도 이니까……그래 어대 신랑감이 잇단말요?」

윤호는 면장이 의외에 호감을가지고 오히려 반가워하는태도를 볼때 마음이 저윽히 노히고 용기가 생기엇다。

「저 면장어른께서도 다 잘아시는 사람 입니다」

「응 거누구야」

「바루 저ㅣ파침봉자제 태식씨 말입니다」하고 윤호는 조마조마해서 면장의 눈치를 처다보앗다。

「파리식씨말이라」하고 면장은 얼굴에 조금 납부다하는 기미가 아직 나타나지 안는것만도 윤호는 다행하게 생각하고

「참 아시다싶히 저이동네서야 한식을치나 인물로치나 재산으로 따지나 첫손고락에 꼽을 유망한청년이지요 얌전하고 독한데 불행히 구식으로 혼인햇고 또 무식한여자라 도무지 함께 살수가업서서 이혼을 작년에 햇지요 그저 혼인하려면 그게조금 흠이지만 요새청년으로 시상에서 그러케 싸가지잇는 사람이 잇습니까。참 제소견에는 양좌를 위해서 아주 가연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려고 한것이에요 말씀하오면 저편에서는 아주 조캐생각하는것을 제가 짐작하고 면장어른께서만 승락하신다면 문제는잘 해결될것갓습니다。」

윤호는 처음듣기하고 왼큰것과 어떠케말해야 면장의맘을 깃붐는 따판으로 말이 좀 어색한 것을 불만하게 생각하엿다。면장은 잠간 침묵하고 유유히 담배대에 담배를 담어피우며 그동안에 생각을하는 모양이엇다。윤호는 힐긋힐긋 면장의 눈치를 살피며 초조하게 그의 입에서 말이나오기를 기다리엇다。이것은 운명과 태식의 일생을 중대한 문제요 운명을 좌우하는 인륜대사라는 관념은 윤호에게 조금도 업고 다만 이혼인이되면 태식에게 돈량과 논마지기가 생긴다는 단순한 그것으로 초조한것이다。

「말은 잘 알아들엇소」하고 면장은 대답하고 침묵하엿다。윤호는 안타가워 면장의말이 호변하기 전에 좀더힘잇게 면장의맘을 감동시켜보려고

「저도 참 그파침봉네하구 뭐 친합니까 면장어른댁하고 가까웁고 제게는 큰 은혜를 끼처주서서 말하면 제일이나 진배업시 생각하고 오래태식씨와교제를 해가면서 지내보앗더니 참말 뚜밧게 훌륭한사람이여요 아 뭐 서울시골 할것업시 한다하는 여학생에게서 통혼이들어와도 다실타하고 대에따님과 하고십퍼하는것을 보니 혼인이란참 연분이 잇는것가타요 제 생각에는 그만한 자옥이 업슬것가타요 사실말슴이지 태식씨가 실업게에 나서기 망정이지 관변으로 나섯더면 군수감은 넉넉합니다。하기는 돈이나 좀벌어노코 관변으로 나갈생각도 가지는 모양이에요」하고 그는 조그만뇌에서 짜낼수잇는 교묘한 말은 다끄내놋느라고 하엿스나 그래도 부족한것가타서 더 다른말을 궁리하느라고 애를쓰는 것이엇다。면장은 이야기를 다 듯더니

「그건 말아니래도 나도 다짐작하는배요 또 그집과는 세교도잇고 나도 태식씨와 교제해보기도 잇스니까 다는안다고야 할수업지만 어떤어른이란 것은 알지요」하고 말하엿다。

拔毛止 防止 に

ワカミヅ 와가미즈

비듬、若禿、若白髮、毛生에 반드시期待가되는

簡單하고有効한治療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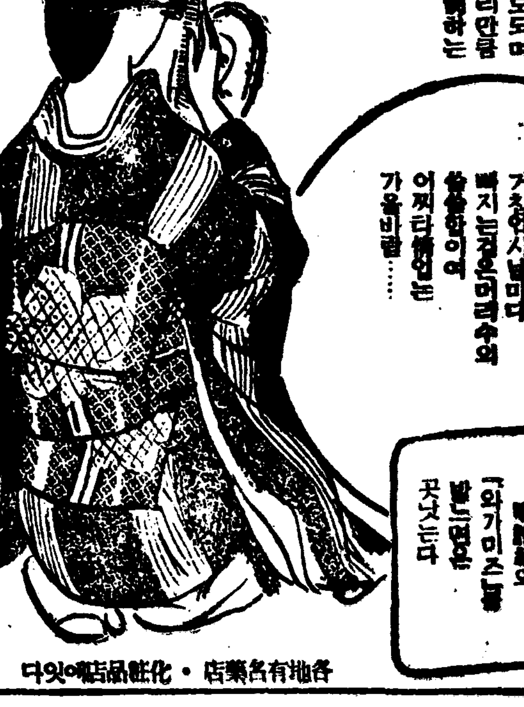
新養毛劑「와가미즈」는

講談社發賣・新配劑의養毛料

醫學博士 井上… 先生・… 先生 協力創製

定價 普及版 1.50 德用版 2.70

各地有名藥店・化粧品店에잇다



蜂蜜 (案內書進呈)

テントカバー (カタログ進呈) 福岡 釜山 …商會

好職業 …… 藥本舖

一田効散 頭痛 齒痛과 頭痛에 神經痛에도 …… 森田製藥所

朝鮮日報 釜山支局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軍手

이은자리업는軍手의 製造家募集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八十四番地 常盤商會支店에照會

常盤商會

電醫養成 (全鮮無試驗開業 醫師同様開業) 認可唯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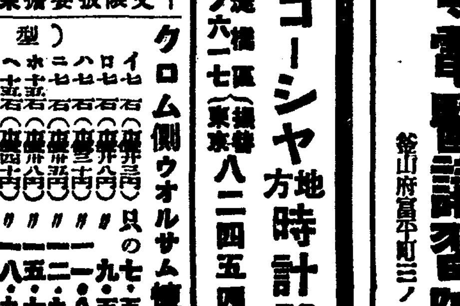
特典入學 …… 認可

高等電醫講習院

本社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弊店創立 五週年記念 大景品付 大賣出

セイコーシャ 地方時計部



頭痛에ノーシン

効果는期待以上! 더구나 胃腸이안상하는理想的頭痛藥

推奬 …醫學博士

セキ止メにベルマン ぜんそくにベルマン 百日咳に

安全하고잘듯는다

純國產

口臭를除去하고 齒牙의淸掃作用을하고 咀嚼에依해서唾液의分泌를促進하고 消化를도으며 씹어서齒齦을 健全케한다

マルイマ のチウインガム 씹으세요

今のガム

名古屋市中區一ノ北… 伊藤製菓所

Maruima kokusan gamu

產業

內外地를 一貫 過剩米自治管理
米穀統制法을 補强
米穀自治管理法 總督府의 要旨說明

米穀對策에 對하야서는 政府는 昭和八年十一月 從來의 米穀法을 廢止하고 새로 米穀統制法을 施行하야 米價의 公定과 季節的參入調節을 二大骨子로 米穀의 統制를 行하고 또昭和九年五月부터 昭和十年三月에 至하기까지의 사이에 臨時米穀移入調節法도 施行하야 米穀對策을 行하야왓스나 昭和八年産米는 內外地를 通하야 未曾有의 大豊作이엇슴으로 米穀統制法의 實施當初부터 公定價格에 依한 政府의 買入數量이 顯著히 巨額에 達한것等 同法實施以來의 米穀事情은 本法律의 施行狀況과 財政上에 及하는 影響等에 鑑하야 對策으로서 아직 考究할것이잇섯슴으로 帝國議會의 貴衆兩院의 決議의 趣旨도 尊重하야 昭和九年九月米穀對策調査會를 內閣에 設置하고 米穀對策에 對하야 다시 硏究를 遂한結果 昨年一月 米穀對策案을 答申하얏슴으로 政府는 右答申에 基하야 米穀自治管理法案外二法案을 立案하야 昨年一月議會에 提出하야 衆議院에서 一部修正한後 可決되엇스나 貴族院에서 審了치못하고 未了로된것이다 다시 今年一月에는 昨年의 衆議院修正案과 大體同樣의 法案을 議會에 提出하얏스나 議會解散으로 未成立되엇슴으로 다시 去第六十九特別議會에 提出하야 드듸어 成立을 보게되어 五月二十七日附로서 公布된것이다

米穀自治管理法은 日本內地、朝鮮及臺灣을 通한 過剩米需統制를 爲하야 日本內地、朝鮮及臺灣에서 米穀을 自治的으로 管理하려는것으로 內外地一貫한 方針下에 統制方策을 講하는 同時에 生産者等으로 하야금 自治的으로 米穀의 剩餘를 圖케하야 政府와 民間과 서로 協力하야 米穀統制의 目的을 達成하려는것이다 即 近年米穀은 日本內地、朝鮮、臺灣을 通한 生産增加에 因하야 供給過剩으로 되어잇슴으로 萬若 一朝 大豊作等에 際會하면 非常한 供給過剩을 生하야 米價를 暴落케할것임으로 過剩米가 잇는 境遇에 잇서서 米穀生産者의 團體、米穀取扱業者의 團體等에 잇서 自治的으로 右過剩米의 管理를 行케하려는 것이 本法의 骨子이다 다음에 法의 內容을 大體 說明하기로 한다

過剩數量算定 統制數量決定

政府는 每年 米穀年度初頭十一月中에 日本內地、朝鮮及臺灣을 通하야 米穀의 需給推算을 行하야 米穀收穫高及十一月一日의 米穀現在高의 合計數量에서 米穀消費豫想高及翌年度에의 理想持越高를 控除한 數量을 그해의 過剩數量으로 豫想하고 그過剩數量에서 다시 政府所有米를 控除한 數量의 範圍內에서 諸般의 事情을 參酌하야 統制數量을 定하는것이다 그러면 需給推算及 統制數量에 對하야서는 米穀自治管理委員會를 內閣에 設하고 이에 諮問하야 決定하기로 되어잇다。

統制配定量
日本內地三五·臺灣二二 朝鮮은四三의比例

前述한 方法으로定한 統制數量의 日本內地、朝鮮及臺灣에 對한 配當의 比率은 日本內地、朝鮮及臺灣의 各地의 米穀管外移出數量의 增加趨勢外에 米穀管外移出數量及米穀收穫의 豊凶等도 參酌하야 定하게되어잇다 即 米穀統制의 必要를 生하게된 原因은 近年 日本內地市場의 米穀供給이 急히 增加하야 過剩되게되기때문이오 또 米穀消費市場은 日本內地、朝鮮及臺灣의 米穀生産者에 共通하야 其利害를 가티함으로 此過剩米穀을 統制하기爲하야 配當하는 比率은 主로 日本內地、朝鮮及臺灣各地域의 米穀管外移出의 狀況 作況의 關係等도 考慮하야 決定하는것이 가장 妥當타한것이다。그리고 其配當의 比率은 米穀自治管理委員會에 諮問하야 定하기로되어잇스나 當分間은 日本內地百分의三十五、朝鮮百分의四十三、臺灣百分의 二十二로하게 되어잇다 但日本內地、朝鮮及臺灣의 米穀收穫豊凶이 異常한 境遇는 米穀自治管理委員會에 諮하야 多少 此比率을 變更하게되어잇다 그리고 管外移出數量의 增加趨勢라는것은 日本內地에잇서서는 米穀生産이 過剩한 縣의 縣外移出高、朝鮮及臺灣에 잇서서는 日本內地에의 移出高에 對하야 各히 最小自剩法에 依하야 算出한 年年의 平均的移出增加高를 말하는것이다

組合과聯合會 統制機構造成

日本內地、朝鮮及臺灣에 配當된 數量을 自治的으로 統制하기爲하야서는 朝鮮에 잇서서는 府郡島、日本內地에 잇서서는 市町村、臺灣에 잇서서는 廳又는 郡市를 區域으로 米穀生産者、地主及倉庫業者等으로 하야금 米穀統制組合을 組成케하고 또此組合은 相互의 連絡을 圖하야 其機能을 充分히 發揮식히기爲하야 上級團體로서 地方米穀統制組合聯合會를 組成하고 이를 統轄식히는것이다 그리고 米穀統制組合의 事業은 行政官廳의 許可를 受하야 새로 米穀統制組合을 設置지안허도 米穀販賣組合 又는 産業組合에서 이를 代行할수잇게 되어잇다 그러나 此點에 對하야서는 朝鮮은 郡을 單位로하고 統制組合을 만들기로되어 잇슴으로 旣設販賣組合等의 利用은 困難하고 또 産業組合의 數도 日本內地는 一萬數千에나 達하는 現狀에 잇스나 朝鮮에잇서서는 極히 少數임으로 그代行에 對하야서는 目下로서는 생각지안는다 以上과가티 統制組合은 過剩米가 잇는해에만 其活動을 보게되는것임으로 凶年이나 凶年이 아니라도 過剩米가 업는때는 發動치안는다

生産販賣高等을 參酌하야서配定

日本內地、朝鮮及臺灣에 配當된 數量은 農林大臣、朝鮮總督、臺灣總督으로부터 各히 其地方米穀統制組合聯合會에 이를 配當하고 其米穀에 對하야 統制를 命하며 地方統制組合聯合會는 各其所屬의 米穀統制組合 又는 其事業을 代行하는 團體에 對하야 米穀統制組合 又는 其事業을 代行하는 團體는 다시 其團體員에 順次系統的으로 이를 配當하야 統制식힌다 그리고 其配當標準은 當該組合의 地區又는 組合員의 生産高、販賣高等을 參酌하야 定하는데 組合이 配當을 하지안는때는 行政官廳이 代身하야 配當을하고 또 朝鮮及臺灣에 잇서서는 特別한 理由가잇는 境遇는 最初부터 官廳이 直接各組合에 配當을 命할수잇도록되어잇다 이가티 朝鮮及臺灣의 配當에 關하야 特例를 設한것은 産米가 僅少하야 組合의 設置數도 적고 따라 地方統制組合聯合會의 必要를 認치안는 地方(咸北)도 잇슴으로 그와가튼 境遇에는 行政官廳의 直接配當을 命할수잇도록 便法을 設할 必要가잇기때문이다

米를强制寄託
統制組合에서貯藏

米穀統制組合又는 其事業을 代行하는 團體가 組合員 又는 團體員에 配當한 米穀은 原則으로 强制寄託을 시키고 統制組合에서 貯藏하는것이다

그리고 其貯藏米穀은 目下日本內地米의 價格이 米穀統制法의 標準最低價格보다 一割以上의 値上이잇서 政府로부터 解除許可 又는 命令이잇기까지는 其貯藏을 繼續하기로되어잇서서 米穀統制法의 規定과가티 最高價格以上으로되기까지 政府米를 팔수업는것과는 달라 貯藏者는 其許可 又는 命令이잇스면 自由로 賣却할수잇슴으로 生産者에게도 便宜하고 一面 消費者에게도 利益이되는터이다

그리고 組合이 貯藏할 米穀中 組合의 貯藏能力 其他의 事情을 參酌하야 其貯藏이 困難하다고 認定되는 部分은 當該組合으로부터의 賣渡申込에 依하야 政府에서 買上하기로되어잇다 그리고 其買上價格은 日本內地米에 對하야서는 米穀統制法의 最低價格에 依하야 朝鮮米及臺灣米에 對하야서는 生産費 運賃諸掛及物價其他의 經濟事情을 參酌하야 定하는 價格에 依하기로되어잇다 即 過剩米統制가 發動하는 境遇는 적어도 米價가 最低價格을 割하려는 境遇임으로 買上價格의 基準은 最低米價를 採擇한것이다 그리고 此買上은 組合이 希望하는 境遇에 限함으로 組合이 希望치 안는때는 政府는 買上치 안는것은 말할것도 업다

政府助成施設
運賃、金利等交附

(一) 組合에 對한 助成 組合에는 倉庫의 建設費、經營費及保管料補助를 交付하기로되어잇다

(二) 貯藏米穀에 對한 助成 貯藏된 米穀에 對하야서는 低利資金을 融通하는外 貯藏者에 對하야서는 貯藏場所까지의 運賃及 貯藏期間中의 金利及 倉庫料를 交付하기로 되어잇다

(三) 年度를 超過한 統制米穀에 對한 助成 貯藏된 米穀이 當該米穀年度를 經過하야도 아직 解除되지안는 境遇에는 政府는 一定價格에 依하야 買上하든가 又는 古米格差의 補償을 하는等 適當한 處置를 講하야 貯藏者에게 損失을 주지안토록하게 되어잇다

過剩米尙存時 第二次로統制

以上 述한바와가티 爲先 米穀生産者의 團體로하야금 第一次의 統制를 行하는데 其統制數量은 米穀年度初에잇서 第二回豫想收穫高 過去의 消費狀況을 參酌하야 定한 消費豫想等을 基礎로 決定하는것임으로 其後 實收高가 判明하야 그것이 第二回豫想收穫高보다도 顯著히 增加하든가 又는 消費의 減退等에 依하야 더욱 過剩數量의 增加를 招來하야 第一次의 統制를 行하야도 아직 米價가 標準最低價格을 下廻하고 又는 下廻할 念慮가잇는 境遇에는 米穀自治管理委員會에 諮問하야 다시 一定數量의 米穀을 統制식힐수잇게되어잇다

그리고 이지음에는 米穀의 大部分은 이미 生産者의 손을 떠나잇슴으로 生産者의 團體인 前記 米穀統制組合 又는 其事業을 代行하는 團體에 配當統制식히는外 主要米穀集産地의 米穀商統制組合에도 配當하야 統制의 徹底를 期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米穀取扱業者가 組織하는 商業組合 又는 重要物産同業組合은 行政官廳의 許可를 受하야 米穀商統制組合의 事業을 代行할수잇게 되어잇다 朝鮮에서는 아직 商業組合이 認定되지 안헛슴으로 重要物産同業組合만이 생각되나 이것도 只今으로서는 代行할수잇는것이 업다

그리고 其統制의 方法及 政府의 助成施設等은 前述한 第一次統制의 境遇와 大體同一하나 貯藏이 困難하다고 認定된 米穀을 團體의 希望에 依하야 政府가 買上하는 境遇의 價格은 米價가 大體 第一次의 境遇와 同樣하고 推斷되므로 日本內地米에 잇서서는 最低價格에 依하나 朝鮮米及 臺灣米에 對하야서는 日本內地米의 標準最低價格、日本內地米와의 格差、運賃、諸掛等을 參酌하야 定한 價格의 範圍內에서 時價에 準據하야 定하기로되어잇다

또 米穀商統制組合의 組織과 事業等은 大體 生産者의 統制組合의 境遇와 同一하다

米穀自治管理法은 大體 以上과가튼데 要컨대 本法은 米穀統制法의 補强策으로 內外地를 通하야 米穀關係者로하야금 自治的으로 統制의 一部를 行케하려는것으로 米穀의 供給이 過剩인 境遇에 米價가 暴落하야 生産者뿐만 아니라 米穀取扱業者 其他 經濟界一般에 對하야 多大한 影響을 與하는것을 防止하고 또 一定한 程度로 値上한때는 貯藏을 解除하야 需給의 圓滑과 消費經濟에의 影響을 調整하고 一面 政府의 大量買入을 節約하야 國庫負擔의 輕減을 圖하야 米穀統制法과 相俟하야 內外地一貫한 方針下에 米穀對策의 强化徹底를 期하려는 것이다

產業調査會委員의意見
人絹팔프는 朝鮮有望
王子製紙社長 談

産業調査會에 出席次로 北鮮視察에서 一昨入京한 北鮮製紙社長 [illegible]太郞氏는 左와如히 말한다

産業調査會에는 좀늣게 參席하얏스나 昨日午後人絹部會로 參加하얏다 日本內地의 여러가지 調査會와 달러서 主催側이나 招[illegible] 會에서 責任을 [illegible]하기 爲하야 [illegible]의 調査會가 만흔데 對하야 總督府는 그러한 關係가 업는것과 産業施設上의 今後朝鮮을 如何히 하겟느냐하는 重大岐路에 서서 根本方針을 定하지 안흐면 안되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北朝鮮製紙의 吉州工場도 操業[illegible]하얏슴으로 會가 끗나면 한번 볼作定이다 同工場은 年間二萬噸의 人絹팔프를 [illegible]하는것이 目的인데 技術上 最初는 製紙팔프本位로 進行하고 漸次로 技術의 向上에 伴하야 人絹팔프를 [illegible]하려고한다 工場의 基礎工事는 將來年間 四萬噸程度까지 擴張할수잇게 되어잇는데 그實現은 原料[illegible]를 調査하야 그쪽의 [illegible]이 선뒤의 일이다 [illegible] 從來 人絹팔프는 [illegible]木材外에는 原料가 업섯는데 吾社의 試驗室에서 [illegible]한 結果 이번 吉州工場에서는 [illegible]도 原料로 되는것이 [illegible]되야 [illegible] 業界에 一大[illegible]을 주어 [illegible] 人絹팔프 原料材의 硏究는 이러나서 世界各地에서 硏究되야 여러가지가 發見되고잇다 그中에도 朝鮮의 [illegible]江、[illegible]江等 諸大川流域의 低濕地帶에 繁茂하는 [illegible]가 適材인것도 試驗의 結果 證明되엇슴으로 昨日도 調査會에서 말하엿는데 同地帶에 [illegible]의 植林을 하야 將來에 이러날 人絹팔프原料難을 防止하고 併하야 朝鮮의 同事業의 發達에 努力할 必要가 잇다고 생각한다

北鮮製紙의 第二回拂込金은 株主가 配當이 減少되어도 바더드리라는 希望이 잇스면 언제든지 밧겟다

日本팔프工業은 現在 人絹팔프 十二萬噸、製紙팔프 十五萬噸、合計 二十七萬噸식 每年輸入되는 狀態이다 그리고 年年需要가 增加되는데 對하야 國內의 生産力은 王子製紙인이 人絹팔프를 三萬噸、製紙팔프를 七萬噸 合計 十萬噸을 製造하고잇는 程度임으로 將來性은 充分하다

輸出加工品의 計畫
國司日產常務 談

産業調査會에 出席中인 國司日産常務는 如左히 말한다

北朝鮮沿岸의 漁業開發에는 大正六年에 共同漁業과 日本水産의 손으로 [illegible]의 [illegible]、[illegible]等의 漁業에 着手하얏는바 [illegible] 잘되지안코 [illegible] 今日에는 [illegible] 主[illegible]業이되어잇다 [illegible] 現在에는 鰯을 主로하고 [illegible] 吾社의 [illegible]方針은 [illegible] 化學的으로 [illegible] 第一目的으로 [illegible] 海外에 輸出[illegible] 따라 北朝鮮에서도 昭和四年부터 [illegible]의 일을 [illegible] 海外로 [illegible]하얏는바 今後도 이方針으로 [illegible] 進行하려고 생각하고잇다

그러나 總督府로서는 年年四千萬圓의 水産이잇다 이 事業에 對하야서는 相當한 [illegible] 必要가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北朝鮮의 [illegible]은 [illegible] 크게 [illegible]合理化할 必要가 잇다고 생각한다 吾社도 將來의 動向을 보아서 [illegible] 創立할 생각이다

高地帶開發急務 ⑥

林況

國有林은 林相이 比較的良好하야 甲山郡普天面白岩山麓同面胞胎山麓、雲興面 南雲嶺附近、豊山郡熊耳面北水白山附近及長津郡上南面長津白山、大紅山附近等은 有名한 密林이잇는곳으로 朝鮮松 又는 唐檜 又는 樅의 純林 唐檜朝鮮松의 混淆林을 形成하야 一町平均五百乃至七百尺締의 蓄積을 有한것 數萬町步의 多數에 達하나 民有林에잇서서는 아직 幼稚한 域을 未脫한것이만허 林相이 大槪良好치못하다

蓄積及林産額

本地帶의 山林總蓄積은 大略一億尺締로 合理的森林經營을하는때는 年伐量七百萬尺締乃至一千萬尺締를 擧키어렵지안타 그런데 現在 年生産量約五百萬尺締에 不過한것은 山火의 被害、火田의 侵墾等에 依한 亡失이 甚大한 結果로 이現狀대로 推移하면 蓄積이 顯著히 減少할念慮가잇다 그러나 一部 奧地帶의 滯業樹林은 運搬에 多額의 經費를 要함으로 아직 開發되지 안흔狀況이다

木材의 運搬은 豊山郡天南面 新興郡東上面及長津郡의 南部三面은 河川 又는 軌道를 利用하야 日本海方面에 搬出하고 其他는 極히 少量의 鐵道枕木을 除한外 모다 長津江 虛川江 其他를 經하야 鴨綠江을 流下하야 新義州에 搬出하고 잇스나 水位의 低下로 流筏에 甚히 支障을 招來하고 또는 不時增水로 流失이 不少한 狀況이다

森林勞働

本地帶의 用材의 伐採額은 年平均二百十萬尺締로 그伐木造材 運材等에 從事하는 延人員 約二百六十三萬人 賃銀約百三十一萬圓에 達하야 其中 約半 百三十一萬五千人 六十五萬五千圓은 本地帶農家의 勞働收入인데 이에 造林人員延九萬四千人 檢木製造 其他十萬人을 加하면 森林勞働數延百五十萬九千人 此賃銀合計七十五萬二千圓內外에 達한다

造林

本地帶의 要造林面積은 國有林 十一萬六千五百町步 民有林 三萬五千五百町步로 右에 對하야 每年 國有林 植栽 五百町步 百萬本 播種 五百町步 二百四十萬本 民有林 植栽 八百町步 百九十萬本의 造林을 實施하고 또 年年 天然稚樹發生地數百町步에 亘하야 成林撫育을 하고잇다 그리고 造林樹種은 國民有林모다 朝鮮落葉松을 主로하고 朝鮮松、唐檜、樅等이 그다음이다 本地帶의 朝鮮落葉松은 特히 生長이 良好하야 火田跡地의 造林、防風樹帶의 造成에 가장 適當하다고 認한다 또 右外 森林保護林造成을 爲하야 河岸、路傍 其他空閑地에 每年四百町步約百卄二萬本內外의 벗나무、楊等의 插木造林을 行하고잇다

現行北朝鮮開拓事業(林業關係)의槪要

本地帶의 大部分及이에 接續하는 咸北茂山郡 平北厚昌 江界 慈城의 諸郡을 抱括하는 國有林의 保護開發과 右國有林內火田民의 指導를 爲하야 如左히 實施中이다

目的

本地方은 所謂山地帶에 屬하야 其約七割 即面積二百十六萬町步(本道管內 一〇九萬町步)는 要存置豫定國有林野가 이를 占하고 其蓄積이 자못 豊富하나 伐出運輸의 利便을 缺함으로 多數의 優良林木은 空然히 枯死腐朽에 맛기는外업고 게다가 濫動이 甚한 火田民의 跋扈跳梁으로 年年 廣大한 美林을 燒燼하야 地方唯一의 産業인 營林事業의 基礎는 漸次 破壞되어 莫大한 富를 喪失하고잇슬뿐만아니라 森林의 荒廢는 延하야 土地의 保全을 危殆케하고 水及氣象上 惡影響을 及하는等 其禍害가 可恐할만한것임으로 本計畫에잇서서는 森林의 利用開發에 關한 施設을 實行하는 一面 森林被害의 主因이되어잇는 旣往의 火田民에 對하야서는 그 善導定着을 策하야 平和한 山村의 建設을 企圖하는 同時에 森林保護의 完璧을 期하며 林利의 永久保續을 하야써 地方開發의 實을 擧하려는데잇다

實施期間

自昭和七年度 至同二十一年度 十五個年

所要經費槪算

總額 一千二百十八萬三千圓

主要한事業

(가) 森林의利用開發에關한施設 本施設은 白頭山을 中心으로하는 森林約八十萬町步(本道管內三十萬町步)를 目標로 拓殖鐵道(茂山白岩間) 及惠山線과 連繫하는 森林鐵道及軌道를 敷設하고 또 山地에 簡易製材工場을 建設하려는것으로 目下 그調査設計中인데 其他地域에 對해서는 森林의 保護及交通運輸機關의 整備等과 相俟하야 利用開發의 目的을 達함에 努力하려는것이다

(나) 火田民의指導施設 現在의 火田民(三萬餘戶)에 對하야서는 各現場에 指導員을 特設하기로하야 即火田民七百戶內外를 標準으로 一、山農指導區를 設하고 各區에 指導手一人式을 配屬하고 또 十個指導區에 對하야 一個所의 比例로 山農指導監督事務所를 設置하고 技手一名을 配置하야 直接又는 間接으로 監督指導의 任에 當하기로하야 彼等의 惡癖을 匡正하고 從來의 掠奪農法은 이를 改革하야 自作農으로 定着하도록 主副業等에 關하야 適切한 指導獎勵를 加하려는것으로 이 美者 그施策의 實行을 期하고잇다 그리고 그實行에 當하야서는 現地의 耕作을 그대로 認容함을 原則으로하고 國土保安及營林上 支障이잇는 境遇其他 必要하다고 認하는때에 限하야 새로 他國有林野內의 農耕適地를 替地로서 供與(必要라고 認하는때는 當該耕作者를 移轉收容함)하기로 하고 此等의 火田及替地에 對하야서는 各其 實査한후 當該耕作者에 賃付하고 爾後 耕作者가 官의 指導獎勵에 服從하야 定着한때에 限하야 該地의 讓渡處分을 함 方針이다 그리고 本道의 火田民指導狀況은 如左하다

山農指導區 一四 戶數…二萬三千九百五十八戶 人口…十五萬八千九百八十人 火田面積…六萬六千三百三十八町步

指導機關으로 現地에 山農指導區監督事務所四個(豊山은 四個所目下準備中)과 山農指導區三十四個所를 設置하고 農林業의 改良發達、副業의 獎勵、貯蓄의 獎勵、風敎化經濟施設、火田民의 移轉收容、開放地에 對한 産業開發等에 對하야 着着獎勵計畫에 基하야 實施하고잇다

(다) 森林의 保護 現在의 火田民(森林保護區備付의 臺帳에 登錄된 者에 限함)에 對하야서는 前記와 如히 善導定着을 策하나 新規의 冒耕은 絶對로 禁遏하고 또 各種의 森林被害는 이를 絶滅할 方針으로 森林保護機關을 擴充整備하고 銳意保護取締의 徹底를 期하여 努力하고잇다 그리고 近時開拓事業의 實行에 伴하야 地域內國有林野는 隨意火田民의 耕作을 認容함과 如한 全然 虛構의 說을 流布하는 者가잇슴으로 此等의 流言蜚語를 내는者 其他 事業을 妨害하는 者에 對하야 嚴重取締하기로되어 目下 手配中이다

米穀統制組合 各地에서創立

【高靈】 災害에 呻吟하는 高靈에서는 地主의 看穫期와 農家의 秋收期를 當한이때 郡農會에서는 郡內有力地主와 舍音 其他 有志者篤農家等 四百餘名을 會集하야 十八日午前十二時普通學校講堂에서 農事改良에 對한 懇談會를 開催하고 農事改良에 對한 自覺과 小作料査定에 對한 猛省을 促한바잇섯다 따라서 席上에서 米穀自治管理法施行에 伴한 統制組合도 創立케 되엿다한다

【舍人】 지난 十八日午前十時半頃에 順川郡廳에서도 順川郡米穀統制組合創立總會가 열리엇는바 全郡內資格者四百餘名中에서 七十餘名이 出席하고 其餘는 委任代理로서 開會되여 原案을 一致可決한後 午後一時에 閉會하엿다

【醴泉】 醴泉郡米穀統制組合創立總會는 十八日 午前十一時부터 醴泉乾繭場에서 開催하엿는데 組合員資格은 自作農一町五段 小作農三町步以上 耕作者로 組織되는데 當日出席組合員이 六百餘名에 達하엿다

【高敞】 지난 十三日 高敞米穀統制組合創立總會를 高敞郡廳會議室에서 開催하엿다한다

【金浦】 지난 二十日 金浦郡에서는 米穀統制組合創立總會를 開催하엿는바 組合員 一千二百名中 當日出席者와 委任狀提出者가 半數以上에 達하야 모든 決議事項을 圓滿히 終了한後 閉會하엿다

【扶餘】 米穀自治管理法에 伴한 扶餘郡 米穀統制組合創立總會는 去十月十三日 午前十一時五十分에 當地普通學校에서 開催하고 創立費用과 定款을 通過하고 評議員五名을 選定하고 各面選擧區內의 總代定數를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第一區 扶餘面三人 ▲第二區 窺岩面二人 ▲第三區 恩山面二人 ▲第四區 外山面一人 ▲第五區 內山面一人 ▲第六區 九龍面一人 ▲第七區 鴻山面一人 ▲第八區 玉山面一人 ▲第九區 南面二人 ▲第十區 忠化面一人 ▲第十一區 良化面一人 ▲第十二區 林川面三人 ▲第十三區 場岩面三人 ▲第十四區 世道面三人 ▲第十五區 石城面二人 ▲第十六區 草村面二人

【安州】 지난 十八日 安州郡에서는 米穀自治管理法에 伴한 安州米穀統制組合 創立總會를 열고 定款通過 評議員六人選任 其他事項을 決定하엿는데 組合員一千三百三十八名中 當日出席者는 一千六百名이엿다

【安東】 지난 十九日午前九時부터 安東郡에서 米穀統制組合創立總會를 驛前乾繭場에서 開催하고 定款其他 諸般事項을 決議하엿다

【安義】 慶南咸陽郡에서는 지난 十九日 米穀自治管理法 實施에 伴한 米穀統制組合創立總會를 開催한바 組合員은 八百二十六名이며 選定된 評議員은 六人이라 한다

【高城】 高城郡에서는 지난 二十二日 午前十一時부터 高城邑內 金剛幼稚園에서 米穀統制組合創立總會를 開催한바 組合員三百一名中 出席者가 二百餘名에 達하엿다 當日은 定款通過其他議事를 進行하고 評議員六名을 選任하엿다

產◇業◇短◇信

▲淸州 燃料政策에 依하야 朝鮮總督府에서 石油를 統制하야 朝鮮石油株式會社가 誕生하야 石油를 製造供給하기로되엿는데 이製品이 나오자 忠北販賣元으로 資本金三十萬圓의 會社가 創立되게되얏다 이 中鮮商事株式會社는 露油商會와 中鮮商事合資會社의 後身으로서 忠北及 忠南各地에 代理店과 出張所等을 設置하야 大大的으로 活動할 豫定이라하며 [illegible] 朝鮮石油會社의 [illegible]役社長에 洪鍾憲氏 專務取締役에 宋在誥氏라한다

▲馬山 馬山穀物組合에서는 지난二十一日午後一時에 第三回定期總會를 元東會社二層에서 開催하고 組合員三十餘名의 出席으로 會務及 會計報告、役員改選等이잇섯다

日用商品市況

三十日 京城市內 海産物市況은 如左하다

▲明太 生太活況 乾明太는 良品의 入荷가 적어 市勢는 한짝(二十五貫)에 對하야 朝鮮産北海道産 共히 二十一圓가량인데 入荷나 實行이 不振狀態이다 生明太는 漸次로 盛漁期로 드러가고잇는데 目下 多少의 入荷를 보아 配給되는 狀態로 市勢는 한두름(二十尾)에 對하야 一圓十錢가량이다

▲미역 不勢 미역은 需要期를 이미 지나서 入荷나 需要가 極少量에 達하는바 今日市勢는 한조(二十닙)에 對하야 長藿二圓 沙藿六十五錢가량이다

▲다시마 不振 다시마도 需要一過로 市況이 不振狀態인데 今日市勢는 一貫(百五十斤)에 對하야 十八圓乃至 十九圓가량이다

▲연어 不振 乾연어는 一時는 實行이 良好하야 자못 活況을 呈하더바 最近은 需要減退로 入荷도 減少되엇스며 今日市勢는 十二貫入一俵에 九圓五十錢 乃至 九圓七十錢 十貫入一俵 七圓가량이다

▲메르치 活況 메르치는 入荷와 實行이 活潑한데 今日實當市勢는 普通메르치 가나가 一圓乃至一圓八十錢、가나가 一圓二十錢乃至 一圓四十錢가량이다

▲암치 閑散 암치는 入荷가 極少하나 在荷品의 實行이 多少잇는 形便이다 今日市勢는 한손(二尾)에 對하야 九十錢 乃至 四圓가량이다

▲大口魚 沈滯 乾大口魚도 亦是 需要期經過로 市況이 沈滯한데 今日斤當市勢는 二十四錢乃至二十八錢가량이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〇九三	京畿富川郡德積面	九月卅日	京城府體府町 金宇鎬
一九一五	忠南公州郡灘川面	同	東京市麴町區內山下町 朝鮮産金株式會社
一三六五二	京畿始興郡新東面	十月二日	京城府薰井町 朱啓垣
一五九四	忠北永同郡永同面	十月二日	東京市芝區三田四丁目 代表者 莊要三郞 / 同 下谷區谷中淸水町 山中義信
一二七五三	同永同面、揚江面	十月二日	同
六〇四〇	慶南固城郡三山面	十月二日	統營郡統營邑 竹田チカ
六六八九	平北寧邊郡北新峴面、泰平面	十月二日	京城府本町一丁目 八洲鑛業株式會社
一三五二二	平北熙川郡新豊面	十月二日	京城府樂園町 閔應植
八三六二	江原淮陽郡下北面	十月三日	京城府南山町 緖方茂夫
一五五九	忠南天安郡廣德面、豊歲面	十月三日	京城府三坂通 米村嘉平
一二〇〇二	慶北盈德郡柄谷面	十月三日	盈德郡江口面 代表者 李達伊 / 同 金永圭 / 同 金永道
一三五八一	慶北金泉郡甑山面	十月三日	京城府薰井町 李源讚
一三八二	咸南端川郡北斗日面	十月三日	東京市麴町區丸ノ內 日本鑛業株式會社
八五四三	江原道平昌郡平昌面	十月五日	平昌郡平昌面 代表者 柳宗烈 / 京城府旭町 貞永ナカ
九〇三	忠南靑陽郡斜陽面	十月六日	東京市麴町區丸之內 中外鑛業株式會社
一二九一四	咸南北靑郡德城面、北靑邑	十月八日	淸津府新岩洞 代表者 金洪根 / 元山府榮町 洪泰淳 / 北靑郡德城面 李昌極
九六五八	平北朔州郡水豊面	十月九日	共同鑛業權者橋洞金山株式會社의 持分을 東京市麴町區丸之內 中外鑛業株式會社에 移轉함
一二五七三	平北碧潼郡松面	十月九日	東京市麴町區丸之內 中外鑛業株式會社
一二五七三	同楚山郡板面	同	同

◇共同鑛業代表者改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六二四	平北熙川郡西面、寧邊郡泰平面	十月三日	代表者를 朴寶玉으로 改定함

◇共同鑛業代表者指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六五八	平北朔州郡水豊面	十月九日	代表者를 中外鑛業株式會社로 指定함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四四五	忠南天安郡成歡面	十月七日	吳昌麟任意脫退함
同	同	同	姜明均任意脫退함
九八一三	平南順天郡內南面	十月八日	朴在昌任意脫退함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九六八	平北楚山郡江面	十月七日	廢業
一二七六六	同	同	同
一三一七三	江原楊口郡方山面	十月八日	廢業

黃昏 (204)
韓雪野 作 / 安夕影 畫

대조(對照) (七)

말을 맺은 사장은 저욱히 득의의 비웃을 띄우고 잠자고잇다 사장의자리에 앉음으로써 이따금 어데듯는 동목치안흔 지식이 이때에는 이상히 혹을 뛰여나와서 떨에는 웅변이엇다고 스스로 생각하엿다。

그는 그만한 웅변과 리론이면 이번 말성은 용이히 봉쇄할수잇스리라고 생각하엿다。그리며 그는 인제 얼마후에는 바루 그웅변을 실지로 써보리라고 생각하엿다。

그의 눈아페는 벌서 허수룩한 차림에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안즌 직공들의 모습이 방불히 떠올랏다。그리고 자기가 일장의 웅변을 토함으로써 그들이 백기를 들고 물러가버리는 장쾌한 장면도 련상되엿다。

『사장의 위엄에다가 이만한 옷짐—웅변을 실어노면 그어느놈이 물러가지안코 백일것이랴?』

사장은 자기의 취할바태도를 완전히 결정하엿다。

그러나 경재에게는 말로나마 사장을 이길만한 지식도 근기도 업섯다。잇다면 다만 막연한 온정(溫情)이 잇슬뿐……

그것은 물론 남의눈을 속이기 위한것은 아니엇다。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무런 힘도 해결도업는 무책한 온정이엇다。

그는 사장을 미워할 용기도 업섯다。또 사장이 지금 미워하고잇는 그사람들을 미워하는 심사도 물론 업섯다。

그리고 사장의 말을 더드르랴는 생각도 인제업섯다。장차어떠케 되여갈것인지 그는 해아려낼수 업섯다。

무슨 고된 일에 몹시 시달린것가티 머리가 땡해서 정신을 차릴수 업섯다。

그릴판에 문득、사장실바깥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왓다。무슨 소리지는 잘알수업스나 경재는 대뜸 머리가 선뜻해짐을 늣겻다。

그소리는 뜬속도로 점차 가까히 와닷다。사람의 말소리도 각금 석기긴하나 그보다 뚜걱뚜걱하는 투한 구두ㅅ소리가 더 만히 들려왓다。

경재는 까닭업시 가슴이 뛰기시작하엿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오』

그것은 확실히 늙은 전무의 소리엇다。그것이 바루 이편으로 가까히 오는만큼 발소리를 제지하라는 초조한 소리인것도 경재는 곳 알수잇섯다。

다음 순간、사장실 종이문이 소리업시 슬쩍 열렷다。

그것이 마치 무슨 회리바람에 불려서 요란히 열리는것가티 경재는 놀라운 시선을 그리로 주엇다。

서무과장이 당황한 얼골을 조심스러운 동작에 감추어가며 급히、그러나 살작살작 사장실로 걸어들어왓다—

『사장 령감을 뵈입겟다는데요……』

서무과장이 이러케 말하자 사장은 곳 알아채엇스나、어결에

『누가?』

하고 서무과장에게 못다가고 이뜻이 태연한 태도로

『들여들 오래시오』

하고 턱을 들며 몸을 뒤로 제킨다。그러나 순간 그도 미상불 긴장되지안흘수 업섯다。

『이리로 들어오랄가요?』

『네……』

사장의 령을 바다가지고 서무과장이 돌아나간다음 경재는 부지불각에 자리를 이러섯다。

그러나 상기한사람가티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허전그려저서 그는 일부러 다리에 힘을 주어 한두걸음 발을 옴겨노앗다。

굿게 마친 관문(關門)에 다다른것가튼 무거운 기분에 그는 눌리엇다。

사장실 좁은문이 박그로 무슨 커다란 암벽에 다다밀린것가티 뵈엿다。

그릴판에 문이 열리며 늙은 전무가 압서서 드러왓다。그얼골이 태고적 벽화(壁畵)와가티 경어케 질여 뵈엿다。

그러나 그보다 그다음에 드러온 사람들……

경재는 그만 눈이 휘둥그래젓다。신경이 놀라서 머리끗트로 치솟는것가티 선뜻함을 느꼇다。

그사람들중에서 경재는 매첨으로 려순을 보앗다。그리고 꾼식을……또 형철을……

그이상 더생각할 아무런 여유도 그에게는 업섯다。별안간 피 묻어지는듯 그는 눈이 캄캄하엿다。

그는 대숨에 문박그로 차버렷다 허나 그들의 거림자는 더욱 분명히 눈미테서 떠올라왓다。

자기에게 비하야 그들은 너무도 분명한 대조엿다。

이때가티 그는 어드워 가는 황혼에 선 자기자신을 똑똑히 발견한일은 업섯다。